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碩士學位論文

조선시대 규방자수공예소품에
나타난 조형적 특성



濟州大學校 大學院

衣類學科

權 壽 妍

2009年 8月

조선시대 규방자수공예소품에 나타난 조형적 특성

指導教授 張 賢 珠

權 壽 妍

이 論文을 理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09年 8月

權壽妍의 理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_____ 권 영 숙

委 員 _____ 장 정 아

委 員 _____ 장 현 주



濟州大學校 大學院

2009年 8月

목차

국문 초록
표 목차
그림 목차

I. 서론	1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
II. 조선시대 규방자수공예소품의 종류	4
1. 주머니류	4
2. 보자기류	21
3. 기타 소품류	32
III. 규방자수공예소품의 조형적 특성	39
1. 색상	41
2. 문양	46
3. 소재	53
4. 자수기법	57
5. 장식기법	60
V. 결론	65
참고문헌	67
ABSTRACT	69

국문초록

규방공예는 바깥출입이 자유롭지 못했던 조선시대의 부녀자들이 규방이라는 공간 안에서 생활에 필요한 주머니, 보자기, 기타 침선소품 등을 만들던 작업이었다. 이 중 자수 규방공예품은 규방공예품이 실용적인면 뿐만 아니라 장식성을 더하여 규방안에서 지내던 부녀자들의 생각과 염원을 표출하여 주는 도구이기도 하였다.

현대에 와서 많은 나라들이 각자의 고유문화를 내세운 문화상품을 개발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문화상품 개발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많은 기관에서 문화상품 개발을 꾸준하게 진행해 왔으나 재현품이 주류를 이루고 대다수의 상품들이 중국에서 저렴한 가격에 낮은 질로 제작되면서 이미지가 안좋아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많은 고유문화 중에서 조선시대 규방자수공예소품의 종류를 분류하고 조형적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박물관 도록 및 서적을 통한 간접고찰방법과 박물관 유물을 통한 직접고찰방법을 병행하여 조선시대 규방자수공예소품 429점을 중심으로 색상, 문양, 소재, 자수기법, 장식기법을 분석하였다. 한국의 전통장식기법인 자수법을 이용한 조선시대 규방자수공예소품의 조형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한국의 전통 규방자수공예소품에는 물건을 담는 용도의 주머니류, 물건을 싸거나 덮는 용도의 보자기류, 담거나 싸고, 덮는 용도가 아닌 바느질에 필요한 도구나 그 이외의 것인 기타 소품의 유형이 있다. 여기서 분석한 조선시대 규방자수공예소품에 나타난 유형별 출현율을 보면 주머니류(44.52%), 보자기류(16.78%), 기타 소품류(38.70%)로 주머니류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우리의 의복인 한복에는 조끼가 들어오기 전까지 주머니가 없어 실생활에서 불편하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대다수가 사용한 주머니가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몸에 항상 지니고 다니는 주머니류에는 다양한 상징적인 길상문양을 화려하게 자수 놓았음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 규방자수공예소품의 색상별 출현율을 보면 홍색(53.85%), 백색(12.35%), 청색(10.02%), 황색(6.76%)의 순으로 나타났다. 홍색의 비율이 많은 이유는 붉은색이 귀신을 물리친다는 벽사의 의미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조선시대 규방자수공예소품에 자수로 사용된 문양의 출현율을 보면 식물문(20.37%)과 식물문+동물문(17.59%)을 가장 많이 사용했음을 알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꽃이나 꽃과 나비를 자수한 규방공예품이 가장 많았다. 이는 규방안에서 가장 쉽게 관찰할수 바깥풍경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리고 한가지의 문양만을 단독으로 사용한 경우(30.55%)보다 2~3개의 문양을 함께 사용한 복합형의 비중(69.45%)이 월등하게 높았다. 이것은 단독문양보다 여러 종류의 문양을 함께 사용하여 다양한 상징성을 함축적으로 전달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문양의 배치구도에 따른 출현율은 회화형(56.67%), 충전형(42.16%), 산점형(1.17%)으로 회화형의 비중이 월등하게 높았다. 회화형에는 십장생도나 꽃과 나비가 많았고 충전형은 골무같은 작은 소

품에 많이 사용되었고 산점형은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 자수기법이 가장 많이 사용된 소재는 단(73.43%)이며 명주(15.03%), 면(5.59%), 모(4.9%), 사(0.70%), 삼베(0.35%)의 순으로 두께감이 있는 단의 견직물이 자수에 적합했고 삼베같이 성근 직물은 실용성을 강조한 이불보 같은 보자기에 많이 사용되었으나 장식성을 지닌 규방소품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자수 공예품 유물 중에는 평수기법(69.90%)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으며, 이음수기법(44.21%), 씨앗수기법(29.40%), 평수+정금수기법(25.69%), 자련수기법(25.46%), 가름수기법(19.91%) 등의 순서인데 뛰어난 솜씨가 없어도 다양한 표현이 가능하고 쉽게 활용할 수 있는 평수기법이 가장 많이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대부분의 자수가 한가지 기법만을 사용하지 않고 여러가지 기법을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조선시대 규방자수공예소품에는 여미거나 옷에 부착하기 위한 실용성과 장식성을 위해 끈(32.48%), 끈+매듭+술(18.98%), 끈+술(12.04%)등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외 단추, 괴불, 고추 등의 장식을 매달은 경우도 있었다.

Key words: 규방자수공예소품, 주머니, 보자기, 기타 소품류

표 목차

<표 1> 문헌에 나타난 주머니에 관한 기록	6
<표 2> 문헌에 나타난 보자기에 관한 기록	22



그림 목차

<그림 1> 규방자수공예소품의 종류	4
<그림 2> 주머니의 종류	8
<그림 3> 다양한 두루주머니의 예	9
<그림 4> 다양한 귀주머니의 예	12
<그림 5> 다양한 수저집의 예	14
<그림 6> 다양한 안경집의 예	15
<그림 7> 다양한 버선본집의 예	16
<그림 8> 기타 다양한 주머니의 예	20
<그림 9> 보자기의 종류	25
<그림 10> 사용 신분에 따른 보자기의 예	26
<그림 11> 다양한 혼례용 보자기의 예	27
<그림 12> 밥상용보 및 생활용품보의 예	28
<그림 13> 시문방법에 따른 다양한 보자기의 예	29
<그림 14> 소재에 따른 다양한 보자기의 예	30
<그림 15> 바느질 구성법에 따른 보자기의 예	32
<그림 16> 다양한 골무의 예	33
<그림 17> 다양한 바늘꽃이의 예	34
<그림 18> 다양한 베갯모의 예	36
<그림 19> 기타 다양한 소품류의 예	38
<그림 20> 규방자수공예소품의 유형	40
<그림 21> 규방자수공예소품의 유형별 출현율	41
<그림 22> 규방자수공예소품에 나타난 색상의 출현율	42
<그림 23> 규방자수공예소품에 나타난 색상에 따른 분류	43
<그림 24> 규방자수공예소품 중 주머니에 나타난 색상 출현율	44
<그림 25> 규방자수공예소품 중 보자기에 나타난 색상 출현율	45
<그림 26> 규방자수공예소품 중 기타 소품에 나타난 색상의 출현율	45
<그림 27> 규방자수공예소품에 사용된 문양의 유형별 출현율	46
<그림 28> 규방자수공예소품에 사용된 문양의 종류에 따른 분류	47
<그림 29> 규방자수공예소품 중 주머니에 나타난 문양의 유형별 출현율	48
<그림 30> 규방자수공예소품 중 보자기에 나타난 문양의 유형별 출현율	48
<그림 31> 규방자수공예소품 중 기타 소품에 나타난 문양의 유형별 출현율	49
<그림 32> 규방자수공예소품에 사용된 문양의 유형	50
<그림 33> 규방자수공예소품에 사용된 문양의 배치구도에 따른 유형별 출현율 ..	50

<그림 34> 규방자수공예소품에 사용된 문양 배치구도에 따른 분류	51
<그림 35> 규방자수공예소품 중 주머니에 나타난 문양의 배치구도	52
<그림 36> 규방자수공예소품 중 보자기에 나타난 문양의 배치구도	52
<그림 37> 규방자수공예소품 중 기타 소품에 나타난 문양의 배치구도	53
<그림 38> 규방자수공예소품에 사용된 소재의 유형별 출현율	53
<그림 39> 규방자수공예소품에 사용된 소재에 따른 분류	54
<그림 40> 규방자수공예소품 중 주머니에 사용된 소재의 유형별 출현율	55
<그림 41> 규방자수공예소품 중 보자기에 사용된 소재의 유형별 출현율	56
<그림 42> 규방자수공예소품 중 기타 소품에 사용된 소재의 유형별 출현율	56
<그림 43> 규방자수공예소품에 사용된 자수기법의 유형별 출현율	57
<그림 44> 규방자수공예소품에 사용된 자수기법에 따른 분류	58
<그림 45> 규방자수공예소품 중 주머니에 사용된 자수기법의 유형별 출현율	58
<그림 46> 규방자수공예소품 중 보자기에 사용된 자수기법의 유형별 출현율	59
<그림 47> 규방자수공예소품 중 기타 소품에 사용된 자수기법의 유형별 출현율	60
<그림 48> 규방자수공예소품에 사용된 장식기법의 유형별 출현율	61
<그림 49> 규방자수공예소품에 사용된 장식기법에 따른 분류	62
<그림 50> 규방자수공예소품 중 주머니에 사용된 장식기법의 유형별 출현율	63
<그림 51> 규방자수공예소품 중 보자기에 사용된 장식기법의 유형별 출현율	64
<그림 52> 규방자수공예소품 중 기타 소품에 사용된 장식기법의 유형별 출현율	64

I. 서론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조선시대에는 여성이 비교적 자유로운 사회활동을 했던 불교문화권인 고려와는 달리 남존여비 사상을 바탕으로 하는 유교를 국가이념으로 받아들여 내외법을 강조하여 가족외의 남자와 마주보지 못했고, 생활공간도 분리하였다. 이러한 폐쇄된 공간에서 여인들은 바느질과 자수 작업을 통하여 자신들의 숨씨와 생각을 표현하였는데, 이것이 규방문화의 발달 배경이라 볼 수 있다. 이렇게 제작된 소품을 규방소품이라고 하며, 규방소품에 장식을 더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색실을 사용하여 옷감에 통과된 바늘땀의 흔적으로 여러 가지 무늬를 장식하는 기법을 자수라고 한다. 또한 자수는 장식성을 갖는 문양이면서 그 이면에 그 시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소망과 기원이 담겨 있으며 미의식이 투영된 문화적 유산이라 할 수 있다(김종태 외, 2004).

21세기를 문화의 세기라고 할 정도로 현대에는 문화가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며 경제발전의 중심축으로까지 인식되고 있다(권미오, 2002). 한국에서는 다양한 국제행사를 치르면서 국제화, 세계화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캠페인과 활동을 벌여 온지 오래되었으며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국민들의 문화감수성이 높아져 문화상품개발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필요성이 대단히 부각되었다. 그 결과 각 지역의 미술관과 박물관에서는 한국 전통문화의 가치를 인식하여 문화유산을 꾸준히 전시하고 있으며 개인 또는 각 지방단체, 박물관, 산업디자인센터가 주최가 되어 문화상품개발을 꾸준히 진행해 왔다. 그리고 학계에서도 한국적 이미지를 담은 문화상품의 개발을 위해 한국의 고유문화유산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조형성을 분석하려는 시도를 계속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전통문화유산을 응용한 디자인 개발의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비교적 단순하게 재현하는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현재 전통과 문화의 거리로 알려져 있는 인사동에는 수많은 전통 문화상품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이들 중 상당부분이 중국에서 제작된 것이다. 웬만한 생활용품은 중국산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식료품까지도 중국산이 상당량을 차지하고 있으나 이러한 중국산은 대개는 저가상품, 조잡한 상품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우리의 문화상품이 중국인의 손에 의해 제작되어 조잡한 상품이란 이미지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은 실로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상품제작 관련업체의 영세성과 물량의 한계 등의 취약점으로 말미암아 국내 최정상급 기술과 접목되지 못하여 제품의 질이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학계에서도 꾸준히 전통문양 및 시각 문화를 응용한 문화상품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현대화가 곧 서구화라는 생각에서 고유문화유산에 나타난 조형성에 관한 전문적인 이해와 연구가 미흡했던 실정이다.

오늘날 심화된 경쟁 하에 국제, 세계시장에서 우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국가 경쟁력을 갖춘 디자인이 요구된다. 문화적 가치를 유형화시키는 작업은 독특함과 새로움을 추구하는 디자인의 영감으로 세계 각국에서 디자인 개발이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즉 한국 전통 문화의 아름다움을 현대에 형상화시키며 한국적인 고유 이미지를 전달하는 작업이 매우 중요하다. 기술수준이 상품의 값을 결정하게 되어 있는 현 시장경제에서 우리의 아름다운 문화적 가치를 바탕으로 창출한 상품은 국제무대에서 한국적인 이미지 전달과 함께 차별화되고 부가가치를 높이는 디자인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문화적 전통과 가치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한국의 전통장식기법인 자수법을 이용한 조선시대 규방 소품의 종류를 분류하고 여기에 나타난 조형적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고급스러우며 전통적 장식기법인 자수법을 통해 현대적 감각으로 디자인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여 한국 고유의 전통성을 살리면서 현대적 감각과 실용성을 가미한 한국적 디자인의 응용을 도모하고 한국 전통소품을 개발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및 내용

1) 연구방법

연구방법은 문헌 고찰과 실증 고찰을 병행하였다. 박물관 유물을 통한 직접고찰 방법과 박물관 도록 및 서적을 통한 간접고찰방법을 병행했다.

<p>문헌 고찰</p>	<p>< 조선왕조실록>, <국혼정례>, <상방정례> 등의 고문헌과 박물관 도록 및 서적, 기타 규방공예 관련 논문과 서적을 중심으로 한 문헌고찰을 통하여 유형과 문양, 소재, 자수기법, 장식기법, 용도 등을 분석하였다.</p>
<p>실증 고찰</p>	<p>제주민속박물관, 제주대학교 박물관,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경운박물관, 단국대 석주선 기념 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사전자수 박물관 등에서 규방공예품의 실물자료를 통한 직접고찰방법을 통하여 유형을 분류하고 특성을 분석하였다.</p>

2) 연구내용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전통장식기법인 자수법을 사용한 조선시대 규방자수공예소품의 종류를 이해하고 여기에 나타난 조형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전체 5장으로 구성하였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I 장에서는 본 연구의 배경을 밝히고 연구의 필요성, 연구방법 및 연구 내용을 전체적으로 제시하였다.

II 장에서는 조선시대 규방자수공예소품의 종류를 분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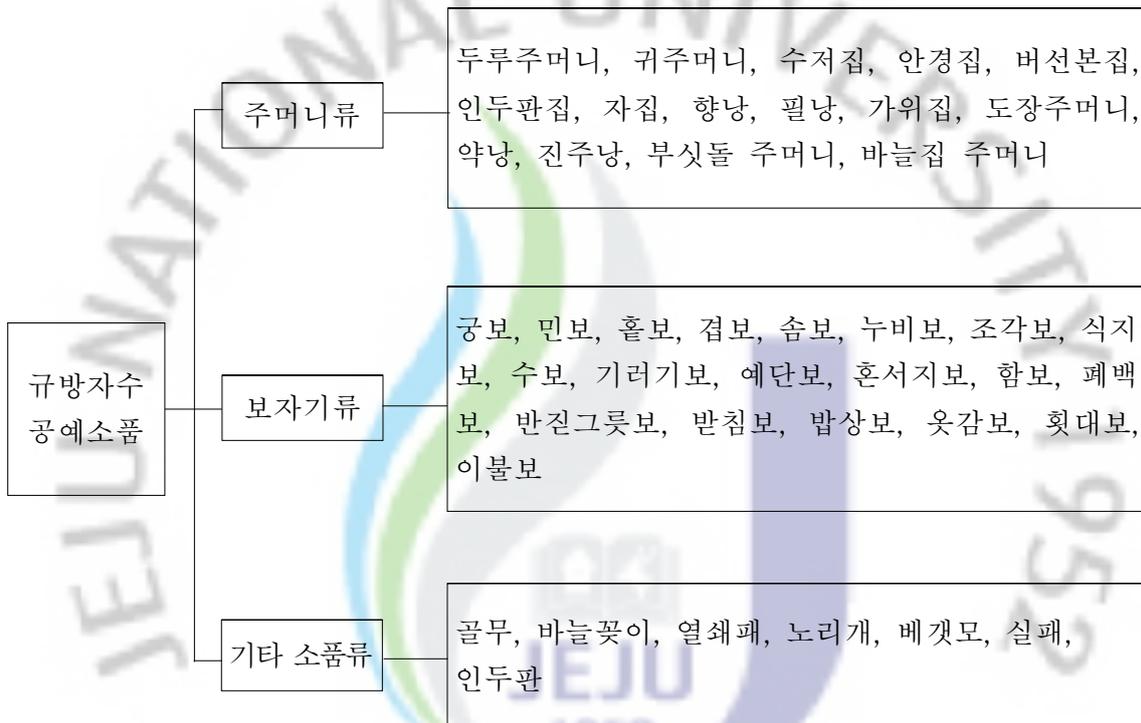
III 장에서는 조선시대 규방자수공예소품의 색상, 문양, 소재, 자수기법, 장식기법에 나타난 조형성을 분석하였다.

IV 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정리하였다.



II. 조선시대 규방자수공예소품의 종류

조선시대에는 실생활에 필요한 물건들을 대부분 가내수공업으로 만들어 사용하였는데 규방 안에서 복식과 불교용품, 소품 등 많은 종류의 물건들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하여 만들어진 규방소품 중 복식을 제외한 자수가 사용된 규방자수공예소품에는 주머니류, 보자기류, 기타 소품류 등의 종류가 있다(그림 1).



<그림 1> 규방자수공예소품의 종류

1. 주머니류

주머니는 돈이나 소지품을 넣기 위하여 허리에 차거나 들고 다니도록 천이나 가죽 따위로 만들어 입구를 졸라매도록 만든 물건이다. 우리 전통 의복에는 주머니가 없었으므로 모든 소지품은 의복에 따로 차는 주머니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러한 주머니는 남녀노소와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의 생활 속에 꾸준히 사용되어 왔으며(김보경, 2003) 이미 일찍부터 주머니를 패용한 기록을 찾을 수 있다.

<삼국유사> 경덕왕조에 “혜공왕이 비단주머니 차기를 좋아했다” 고 한 것을 보면 삼국시대를 전후하여 계속 착용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고려도경>에 “고려

귀족집의 부녀자들은 감람늬건을 띠고 채색 끈에 금방울을 달고 비단으로 만든 향낭을 찻다”라고 한 것으로 보아 고려시대에도 주머니를 이용했던 것을 알 수 있다. (김영숙, 1998) 그리고 <조선왕조실록>과 <국혼정례>, <상방정례> 에서도 주머니에 관한 많은 기록을 볼 수 있는데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문헌에 나타난 주머니에 관한 기록

연도	기록 내용	출처
태종 17년(1417) 07월25일(무인)	사신이 권과과(權婆婆)가 준 금(錦) 2필(匹), 단(段) 2필, 침(針)·분(粉)·주머니[囊]를 친히 권 궁주(權宮主)에게 주고자 하니, 임금이 편전(便殿)으로 맞아들이었다.	조선왕조실록
성종 13년(1482) 11월03일(정유)	승지(承旨)들에게 차는 주머니[佩囊]를 각각 하나씩 하사하였다.	조선왕조실록
성종 16년(1485) 12월13일(경인)	내전(內殿)에서 자단(紫段)의 약 주머니를 영돈녕(領敦寧) 이상과 경연(經筵)의 당상(堂上)과 승정원(承政院)·홍문관(弘文館)·예문관(藝文館)에 나누어 주고, 또 좌승지(左承旨) 성건(成健)에게 대홍 유의(大紅熨衣) 1령(領)을 하사(下賜)하면서 이르기를	조선왕조실록
성종 16년(1485) 12월28일(을사)	자단(紫段) 주머니를 승정원(承政院)에 내리고	조선왕조실록
성종 20년(1489) 04월04일(임진)	해주 목사(海州牧使) 정성근(鄭誠謹)이 며느리를 얻는 일 때문에 올라 왔는데, 임금이 옷과 비단 주머니를 하사하고 전교하기를	조선왕조실록
성종 20년(1489) 10월01일(을유)	임금이 채색(彩色) 주머니에 담은 후추[胡椒]를 의정부(議政府)·육조(六曹)·도총부(都摠府)·한성부(漢城府)·의빈부(儀賓府)의 당상(堂上)과 승정원(承政院)·홍문관(弘文館)·예문관(藝文館) 관원에게 내려 주었다.	조선왕조실록
연산 04년(1498) 06월15일(경진)	제5조. 주머니 끈은 세쇄하니 거행하지 말 것이며	조선왕조실록
인종 01년(1515) 06월18일(기유)	자전이 수가(隨駕)한 시종(侍從)·제장(諸將)에게 술을 먹이고 또 시종에게 호초를 넣은 흰 주머니를 내렸다.	조선왕조실록
선조 02년(1569) 08월29일(경오)	왕대비가 환관(宦官) 박근(朴謹)을 시켜 술을 내리고, 또 각각 자주빛 주머니 1부(部)씩 내렸다.	조선왕조실록
선조 07년(1574) 05월25(무술)	의성전(懿聖殿)의 탄일(誕日)이므로 2품 이상이 문안하니, 의성전이 승전색(承傳色)을 시켜 나와서 대접하게 하며 술을 내리고, 각각에게 주머니를 내렸다.	조선왕조실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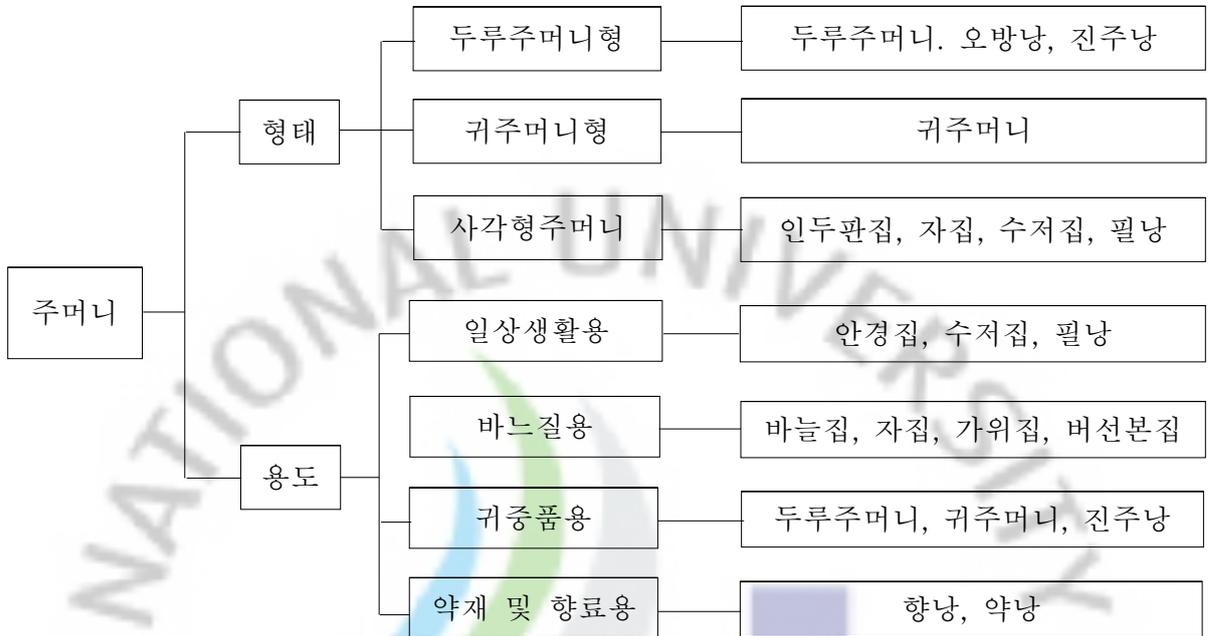
선조 24년(1591) 04월15일(경술)	의정부와 육조의 2품 이상과 승정원과 옥당(玉堂) 전원이 중전의 탄일에 문안할 것을 입계하니, “주머니 1부씩을 내리라.” 라고 답했다.	조선왕조실록
영조 25년 (1749년)	<p>왕비가례 중 수라간에서 쓸 물건의 종류 중 정포(품질이 좋은 무명베) 주머니 1개.</p> <p>왕세자가례 중 수라간에서 쓸 물건의 종류 중 무명으로 만든 주머니 1건, 품질이 좋은 무명베로 만든 주머니 1건.</p> <p>숙의가례 중 별궁기명시 쓸 물건의 종류 중 정포로 만든 주머니 1개.</p>	국혼정례
영조 28년 (1752년)	<p>백정포, 전정포, 면포, 백면포, 전지포 로 만든 주머니.</p> <p>권일 향례 대전 절일진상 정조 및 동지에 중면자를 담은 백정포 주머니가 사용되었다.</p> <p>권일 향례 대전 춘추양등인비망내입매등 에 운면자, 중면자(보통목화솜), 거핵면화(씨를 뺀 목화솜), 백사춘, 백사추, 향사춘, 향사추를 담은 전정포, 면포 주머니가 사용되었다.</p> <p>권일 향례 대전 연례진상 에 북도 돈피를 담은 백면포 주머니가 사용되었다.</p> <p>권일 향례 대전 연례내입에 담람중, 가봉진, 향남종을 담은 전정포 주머니가 사용되었다.</p> <p>권일 향례 대전 점하단자에 백사, 대포, 남, 토화색, 장색, 백을 담은 전정포 주머니 사용되었다.</p> <p>권일 향례 대전 연례진배에 중면자를 담은 전지포 주머니가 사용되었다.</p> <p>권일 향례 대왕대비전 절일진상 정조 에 중면자를 담은 백정포 주머니가 사용되었다.</p> <p>권일 향례 대왕대비전 연례진상에 천의차향 돈피와 향람종을 담은 백면포와 전정포 주머니가 사용되었다.</p> <p>권일 향례 중궁전 연일진상, 절일진상 정조와 하지에 중면자를 담은 백정포 주머니가 사용되었다.</p> <p>권일 향례 세자궁 생진진현와 절일진현 정조와 하지에 중면자를 담은 백정포 주머니가 사용되었다.</p> <p>권일 향례 빈궁 절일진현의 정조와 하지, 연례진현시 중면자와 찬의(고쟁이)차당 돈피, 담람중, 의라중면자를 담은 백정포와 백면포, 전정포 주머니가 사용되었다.</p> <p>권일 향례 현빈궁 생신진현과 절일진현의 정조와 동지, 연례진현시 중면자와 찬의차당돈피, 담람중, 의라중면자를 담은 백정포, 백면포, 전정포 주머니가 사용되었다.</p>	상방정례
영조 33년(1757) 12월21일(기묘)	상방(尙方)에서는 무늬 있는 비단 주머니를 나누어 준다.	조선왕조실록

<표 1>은 조선시대 왕실에서 사용하던 주머니에 관한 기록이다. 국혼정례는 영조 25년, 즉 1749년에 왕명을 받아 박문수 등이 혼례의 풍속이 사치스럽고 국비의 낭비가 심한 경향을 우려하여 국혼에 관한 정례를 만들어 궁중 혼수를 줄여 쓰자는 취지에서 편찬한 국혼에 관한 정식(定式)을 적은 책이다(권영대, 1749/207). 국혼정례에 기록된 주머니의 소재를 보면 무명과 무명베를 사용하여 사치를 막은 것을 알 수 있다. 상방정례에 기록된 주머니의 소재를 보면 정포(품질이 좋은 무명베), 면포, 지포를 사용하였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또한 국혼정례와 마찬가지로 사치를 금하기 위함을 알 수 있다. 조선왕조실록에서는 주머니가 관리들에게 하사품으로 많이 사용되었고 단 소재를 많이 사용한 것을 알 수 있으며 색은 주로 자색과 흰색이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는 약 및 후추를 넣어서 주기도 하였다고 되어 있다. 후추는 인도 남부가 원산지며 실크로드를 통하여 중국으로 들어왔으며 고기 독을 없애고 기생충을 제거하며 동맥경화 등 순환기계통의 질병치료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그리고 주머니에 관한 기록은 비교적 조선전기에는 기록을 많이 발견할 수 있으나 후기에는 기록이 줄어들었다. 그러나 출토품을 보면 조선 후기의 것이 많으므로 조선시대 전반적으로 주머니가 많이 쓰였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임진왜란을 전후한 시기에는 하사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 오랜 전쟁으로 인한 물자의 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궁중용 주머니는 왕실에서 사용하는 물건이기도 하지만 비단에 세련된 자수와 매듭을 장식한 품격이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귀한 예물로 여겼다. 하지만 조정에서는 백성들이 신분에 맞지 않게 사치스런 주머니를 차는 것을 경계하였다. 그것은 세종 28년 5월에 집현전에서 논의한 내용 중에 유품 조사와 유음 자제 외에는 채견 주머니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영조 33년 12월초에 사치 억제에 위해 무늬 있는 비단 주머니의 사용을 금하였다고 한다(김영숙, 김옥현에서 재인용, 2002).

주머니는 지방에 따라 조마니, 주먼치, 개쫓치, 조마이, 주머이, 주먼지, 주무이, 줍치, 안집, 개와속 드응로 불렀고 한자로는 낭(囊)이나 협낭(狹囊) 등으로 표기한다. 고어로는 느뭇, 느뭇으로 적었다고 되어있다(강정현 권영숙, 2003)

주머니의 소재는 용도에 따라 달랐으니 돈을 넣는 돈주머니는 튼튼한 가죽주머니를 많이 사용했고, 담배를 넣는 담배쌈지 역시 튼튼하고 변색이 덜 되는 가죽이나 종이 등을 애용했다. 또한 계절에 따라 복식의 소재가 변하듯이 주머니도 계절에 따라 소재와 색상을 달리했다. 여름에는 숙고사나 갑사 주머니를, 겨울에는 모본단이나 양단 주머니를 즐겨 찼다(김옥현, 2002). 주머니는 형태와 용도 등으로 종류를 나눌 수 있는데 이것을 분류하면 <그림 2> 와 같다.



<그림 2> 주머니의 종류

1) 두루주머니

두루주머니는 염낭 혹은 해낭(亥囊)이라고도 한다. 해낭은 새해 첫 돼지날(亥日)과 쥐날(子日)에 하사하는 주머니 중 둥근 형태의 것을 가리킨다. 주머니의 입구부분에 주름을 잡아 끈을 꿰어 묶는 형식이고 전체적인 형태는 원 또는 타원모양이다.

크게 입구부분에 여러개의 주름을 잡은 형태와 입구부분을 귀주머니처럼 접어넣은 형태의 2종류가 있는데 주름을 여러개로 잡는 형태가 대부분이고 입구부분을 귀주머니처럼 접는 형태는 드물게 나타난다. 대부분의 주머니는 끈에 술과 매듭을 달아 장식하는데 그 외에 괴불, 칠보, 고추, 장도 등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여인들이 주로 착용한 둥근형의 두루주머니에서도 음과 양의 조화를 찾을 수 있는데 음양사상에 따르면 둥근형태는 양의 의미를 가지므로 여인들이 주로 착용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3>은 여러 가지 종류의 두루주머니이다.

		
	<p>① 우리옷과 장신구, p.153</p>	<p>② 옛어린이옷 그 소중한 어여쁨, p.89</p>
<p>입구부분에 여러개의 주름을 잡은형태</p>		
	<p>③ 자수문양, p.163</p>	<p>④ 자수문양, p.173</p>
		
	<p>⑤ 조선조 후기 궁중복식, p.200</p>	<p>⑥ 한국전통매듭, p.221</p>
<p>입구부분을 접어넣은 형태</p>		
	<p>⑦ 자수문양, p.174</p>	<p>⑧ 석주선박물관</p>

<그림 3> 다양한 두루주머니의 예

<그림 3> 은 입구부분에 여러개의 주름을 잡은 두루주머니와 입구부분을 귀주머니처럼 접은 형태의 두루주머니 사진이다. ①은 홍색 단으로 된 둥근모양의 주머니이다. 입구부분에 주름을 여러 개로 잡고 양편에서 엇바꾸어 연두색 끈을 꿰어 양편으로 도래매듭과 국화매듭을 맺고 이봉술을 달아 장식하였다. 동물문+식물문의 복합형 구도로 매화와 새를 수놓았고 여기에 사용된 자수기법은 평수, 이음수, 솔잎수기법 이다.

②는 빨강, 노랑, 초록색의 문단(緞)으로 만든 개인소장의 20세기 초 어린이용 두루주머니이다. 입구부분에 주름을 여러 개로 잡고 도래매듭과 생쪽매듭 등을 사용한 매듭을 달아 장식하였다. 파도, 바위, 원앙, 연꽃, 구름 등의 십장생무늬를 평수와 징금수의 혼합 기법으로 정성스럽게 수놓았다. 볼록한 주머니 안에 노란 콩이 가득 들어있다. 이는 액운을 막고 길한 장래를 기원하는 풍습으로 궁중에서는 정초에 붉은 콩을 붉은 종이에 싸서 하사하기도 하였다(경운박물관, 2005).

③은 홍색의 단소재로 된 두루주머니다. 앞면에는 모란, 벌, 수복(壽福)문양을 수놓아 문양의 종류는 동물문+식물문+문자문의 형태이고 배치구도는 충진형이다. 자수기법은 가름수, 매듭수, 이음수, 평수 등을 사용하였다. 입구부분에 주름을 여러 개 잡고 양편에서 서로 엇바꾸어 끈을 꿰어 도래매듭과 국화매듭을 맺고 이봉술을 달아 장식하였다.

④는 백색의 단으로 만든 두루주머니이다. 대부분의 두루주머니는 주름을 5개 혹은 7개로 잡는데 이 두루주머니는 15개를 잡아 주름을 많이 잡는 중국의 주머니와 유사한 형태이다. 입구부분에 양편에서 엇바꾸어 청색실을 꿰고 장식술을 달았다. 은사로 장보를 수놓고 금사로 덩굴에 열린 호리병을 징금수를 이용하여 수놓았다.

⑤는 향낭 중에 제일 고급품으로 비빈, 공주가 정장에 차는 진주낭이다. 윤비의 경우는 가례 때 고종으로부터 내린 예물이라는데 대체로 비빈, 공주들은 혼례 때 왕으로부터 예물로서 하사받은 것이다. 진주낭은 탄일과 정조 문안에 웃치마에 찬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고급품을 보이지 않는 밑치마 위에 찻다는 데서 옛 사람들의 겸손한 자세를 알 수 있다. 두루주머니에 금사로 징금수를 사용하여 수놓고 진주를 수 위에 단다. 사진은 조선 후기 궁중 진주낭인데 홍색의 단에 금사로 징금수를 놓고 수 위와 주머니의 앞뒤가 만나는 술기 부분에 진주를 달고 입구부분에 파란색 끈을 꿰어 매듭으로 장식하였다.

⑥은 오방낭으로 두루주머니의 형태에 흑, 백, 청, 홍, 황 5가지 색의 단을 동서남북중앙의 방위에 맞게 배열하여 만든 주머니이다. 이 오방낭은 자수나 금박의 장식 없이 만들어진 경우도 있으나 각 면마다 길상문자를 금박하거나 자수를 놓아 만들어진 것들이 많다. 위의 사진은 궁중 유물이라 전하는데, 임금께 올린 오방낭일 것으로 추정된다. 다섯가지 색의 단을 이어 만들고 여러 가지 색실로 짠 끈에 도래매듭과 국화매듭을 맺고 이봉술을 달아 장식하였다. 중앙에는 학과 해, 구름을 수놓고 각각의 네 면에는 파도와 거북, 사슴, 소나무, 대나무, 바위, 불로초 등 십장생무늬를 여러 가지 색실로 수놓아 동물문+식물문+자연문의 복합형태를 보이며 배치구도

는 회화형이다. 자수기법은 평수, 자릿수, 느낌수, 술잎수, 씨앗수, 이음수를 사용하였고 가장자리를 금사징금으로 둘렀다.

⑦과 ⑧은 입구부분을 귀주머니처럼 접은 형태의 주머니이다. ⑦는 홍색의 사(紗)로 만들어졌고 드물게 앞뒷면에 금사를 사용하여 징금수로 밝을 명(明)자를 수놓았다. 입구부분 중간에는 빨간색의 끈을 귀주머니의 형태와 같이 U자 형으로 꿰어 앞부분에 도래매듭, 국화매듭, 잠자리매듭으로 장식하였다.

⑧은 청색의 문사로 만들어진 두루주머니이다. 부리부분에 ⑦와 같은 형식으로 끈을 꿰어 도래매듭으로 장식하였는데 입구부분에 모양을 잡으며 바느질한 실이 그대로 있는 것으로 보아 사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2) 귀주머니

귀주머니는 줌치 혹은 자낭(子囊)이라고도 한다. 자낭은 새해 첫 돼지날(亥日)과 쥐날(子日)에 하사하는 주머니 중 긴 것을 가리킨다. 귀주머니는 윗부분이 트여있는 직사각형의 주머니 형태로 만들어 입구부분을 3등분 한 뒤 Z 모양으로 접고 아래의 양쪽으로 삼각형의 귀가 나오는 각진 형태로 만들고 끈을 꿰어 끼운 형태이다. 대부분의 두루주머니가 2개의 끈이 필요한 반면 귀주머니는 1개의 끈만 필요로 한다.

귀주머니도 두루주머니처럼 끈에 대부분 매듭 또는 매듭과 술을 달아 장식하는데 그 외에 괴불, 칠보, 고추, 장도 등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귀주머니는 각진 형태이므로 음을 나타내는데 남성들이 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장신구에도 음양의 조화를 생각한 것을 알 수 있다. 아래 사진을 보면 대부분 단소재로 만들어진 것을 볼 수 있고 꽃무늬가 많으며 그 외에 십장생문양이 많이 쓰인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4>는 귀주머니 사진이다.

		
<p>① crafts of inner court, p.55</p>	<p>② 자수문양, p.154</p>	<p>③ 자수문양, p.161</p>
		
<p>④ 제주민속박물관 소장</p>	<p>⑤ 제주민속박물관 소장</p>	<p>⑥ 우리옷과 장신구, p.155</p>

<그림 4> 다양한 귀주머니의 예

<그림 4>의 ①은 옥색의 단(緞)으로 만들어진 각진 형태의 주머니이다. 주머니의 목 부분에 홍색의 끈을 꿰어 도래매듭과 생쪽매듭, 잠자리매듭을 맺어 장식하였다. 주머니의 앞면에 구름, 학, 파도, 불로초, 사슴, 바위문양에 수(壽)자와 아(亞)자를 회화형으로 수놓고 문양은 동물문+식물문+문자문+자연문의 복합적인 형태가 사용되었으며 자수기법은 평수, 이음수, 자릿수에 테두리는 금사로 징금수를 수놓았다.

②는 홍색의 단으로 만들어진 귀주머니이다. 주머니의 목 부분에 홍색의 끈을 꿰어 도래매듭과 생쪽매듭, 국화매듭을 맺고 오봉술을 달았으며 단으로 만들어진 꽃을 수놓은 괴불 3개와 작은 두루주머니 1개에 술을 단 것을 끈에 매달아 장식하였다. 앞면에는 구름, 소나무, 사슴, 파도, 바위, 불로초, 꽃을 회화형으로 수놓았고 뒷면에는 모란과 바위, 나비, 박쥐를 충진형으로 수놓아 문양의 종류가 동물문+식물문

+자연문의 구성으로 되어있고 자수기법은 평수, 이음수, 솔잎수, 씨앗수, 새털수, 징금수, 자련수 등을 사용하였다.

③은 홍색의 단으로 만든 귀주머니이다. 주머니의 목 부분에 노란색의 끈을 꿰어 도래매듭, 생쪽매듭, 국화매듭을 맺고 오봉술을 달았으며 생쪽매듭에 이봉술을 달고 표주박, 괴불 모양의 칠보 장식품을 단 것을 앞의 끈에 매달아 장식을 더했다. 입구 부분에 실로 묶었던 것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아 사용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앞면에는 장미와 국화, 뒷면에는 연꽃과 모란, 국화를 충진형의 회화구도로 수놓았고 문양의 종류는 식물문 형태이며 자수기법은 자련수, 사슬수, 가름수, 씨앗수, 이음수등을 사용하였고 장식과 자수문양으로 보아 불로장생, 부귀, 귀한자식을 얻는 소망을 담아 만든 것으로 보인다.

④는 제주민속박물관에 소장된 귀주머니이며 홍색의 단으로 만들어졌다. 모양은 다른 지역의 귀주머니와 같고 마찬가지로 끈을 꿰어 도래매듭, 국화매듭에 오봉술을 달아 장식하였다. 문양은 중앙에 국화를 수놓고 양 귀에도 꽃을 수놓아 충진형 구도를 보이고 자수기법은 자련수, 가름수, 이음수, 평수 등을 사용하였다.

⑤ 역시 제주민속박물관에 소장된 귀주머니로 목에 끈을 꿰어 도래매듭과 생쪽매듭, 국화매듭에 오봉술을 달고 칠보로 만들어진 장도를 달아 장식을 더했다. 걸감은 홍색의 단으로 만들어지고 안감은 면을 대었는데 걸감은 보존상태가 좋지 않아 위사가 그대로 드러나 있고 입구 부분에 안감인 면이 보일 정도이다. 전면에 구름, 파, 소나무, 사슴, 꽃을 수놓았고 문양은 동물문+식물문+자연문의 복합문양 형태로 사용되었으며 자수기법은 평수, 씨앗수, 이음수, 솔잎수, 징금수, 새털수를 사용하였다.

⑥은 홍색의 단으로 만들어진 귀주머니로 청색의 끈을 입구부분에 꿰어 국화매듭과 병아리매듭을 연이어 맺어 오봉술을 달고 분홍색으로 도래매듭과 국화매듭에 이봉술을 장식한 끈을 청색 끈에 달아 장식하였다. 중앙에는 모란을, 양쪽 귀에는 국화를 충진형 구도로 수놓았고 문양은 식물문이 사용되었으며 자수기법은 가름수, 자련수, 씨앗수, 이음수, 평수를 사용하였다.

3) 수저집

먹는 도구인 수저는 생명을 상징하는 귀중한 것이어서 수저를 넣어 두는 수저집에는 십장생문, 연꽃, 모란꽃, 수북, 부귀, 다남자 등의 길상문양과 문자를 수놓아 행운을 기원하며 주머니를 만들어 보관했는데 부녀자가 먼 길을 갈 때 요기가 될 마른 음식을 수저집에 넣어 허리에 차고 다니기도 하였다고 한다(허동화, 2006). <그림 5>는 수저집 사진이다.



<그림 5> 다양한 수저집의 예

<그림 5>의 ①은 홍색의 단으로 만들어진 수저집으로 덮개아래 부분이 V자로 만들어졌다. V자의 아래부분에는 주름진 청색천으로 장식하였다. 앞면에는 해, 구름, 학, 소나무, 사슴, 불로초, 바위를 수놓고 덮개부분은 청색 실로 수(壽)자를 수놓았고 외곽에 아(亞)자를 여러 가지 색을 사용해 돌아가면서 수놓아 화려하다. 뒷면에는 길상어를 수놓아 동물문+식물문+문자문+자연문의 형태를 보이고 여기에 사용된 자수기법은 평수, 솔잎수, 이음수, 씨앗수 등이다. 수저집이 접히는 부분에 끈을 꿰어 묶고 도래매듭, 다섯벌 감개매듭을 맺고 아랫부분에 7봉술을 달아 장식하였다. 수저집의 아랫부분에도 여러 가지 색의 술을 앞뒷면 사이에 넣어 만들어 장식을 더하였다.

②는 제주민속박물관에 소장된 수저집으로 홍색 단으로 만들어졌으나 단과 자수실의 색이 많이 퇴색되었다. 덮개부분이 일자로 되어있고 몸체가 겹치는 부분에 끈을 꿰어 묶고 도래매듭과 병아리매듭, 생쪽매듭을 매어 장식하였다. 연꽃, 파도, 원앙, 바위, 새와 뒷면에 길상문을 수놓았고 문양의 종류는 동물문+식물문+문자문+자연문이다.

③은 홍색의 단으로 만들어진 수저집으로 입구부분과 아랫부분에 검은천으로 얇게 선을 대었고 뒷부분에는 노란색실로 사뜨기를 하여 천을 이어 만들었다. 접히는 덮개부분은 일자형이며 덮개부분과 몸체부분이 겹치는 부분에 구멍을 뚫어 노란색 끈을 꿰고 도래매듭과 국화매듭, 세벌감개매듭, 생쪽매듭 맺고 삼봉술을 달았다. 입구부분 구멍이 뚫린 곳을 중심으로하여 꽃을 수놓았고 몸체부분에는 해, 구름, 학, 소나무, 바위, 불로초, 거북이, 파도를 수놓아 동물문+식물문+자연문의 형태를 보인다. ④도 ③과 마찬가지로 덮개부분이 일자인 수저집으로 홍색의 단으로 만들어졌고 끈에 장도를 달아 장식하였다.

4) 안경집

안경집이란 안경을 넣어 보관하는 케이스로 납작한 타원 형태이다 (이경자 외, 2003). 옛사람들은 안경 착용을 부끄럽게 여겨 허리춤에 매달기보다는 도포 자락에 넣고 다녔다. 그래서 초창기 안경집에는 매다는 끈이 없었다. 그러나 점차 안경 착용을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기게 되자 허리춤에 매다는 것이 유행하였다. 이때부터 멋있하던 안경집도 화려하게 꾸미기 시작했다(허동화, 2006). <그림 6>은 안경집 사진이다.



<그림 6> 다양한 안경집의 예

<그림 6>의 ①은 나무를 깎아 틀을 만들고 황색의 단에 수를 놓아 배접하여 만든 안경집이다. 뚜껑과 몸체가 맞닿는 부분에 검은색 천으로 선을 대고 뚜껑부분과 몸체부분을 잇는 끈을 길게 달아 뚜껑과 몸체가 따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하고 몸체 아랫부분에는 연봉매듭 장식을 하였다. 뚜껑 부분에는 복(福)자를 수놓고 몸체 부분에는 벚꽃을 수놓았고 문양은 식물문+문자문이 복합형태로 사용되었으며 문양의 배치구도는 충진형이다. 사용된 자수기법은 평수, 이음수, 느낌수법이다.

②도 ①과 같이 나무를 깎아 틀을 만들고 홍색의 단에 수를 놓아 배접하여 만든 타원형의 안경집이다. 뚜껑과 몸체부분이 맞닿는 부분, 옆부분은 청색으로 선을 대고 뚜껑에 끈고리를 달아 휴대가 편리하도록 만들었다. 문양의 배치구도는 충진형 구도이며 뚜껑에는 만자, 몸체부분에는 서각보, 여의두, 박쥐, 불로초를 수놓았다. 무늬부분은 사슬수로 메우고 테두리에 금사징금을 하였다.

③은 안경집 틀 위에 흰색의 문단에 학과 소나무, 해 등을 수놓아 만든 안경집이다. 문양은 동물문+식물문+자연문의 복합형태로 사용되었으며 배치구도는 회화형이

다. 자수기법은 평수, 씨앗수, 솔잎수, 이음수 등을 사용하였다.

④는 운현궁에서 입수한 안경집으로 종이로 틀을 만들고 노란색의 단에 수를 놓아 배접하여 만들었다. 좌·우에는 납작한 끈을 달아 실용성을 더했다. 중심에 ‘囍’자를 수놓고 해, 구름, 학, 대나무, 소나무, 사슴, 거북이, 파도, 바위를 수놓아 십장생을 나타내었고 테두리에 여러색의 실로 ‘亞’자를 수놓았다. 문양은 동물문+식물문+문자문+자연문의 복합형태로 사용되었으며 배치구도는 회화형이다. 자수기법은 평수, 자연수, 징금수 등을 이용하여 그림을 표현했다.

5) 버선본집

조선시대 버선을 만들기 위한 버선본을 넣어 두던 보자기로 각 식구마다 버선본을 보관하여 버선을 만들 때마다 간편하게 꺼내어 사용했다. 버선본집은 정사각형의 천을 만들어 네귀퉁이를 가운데로 모으고 덮개로 쓰이지 않는 부분의 모서리를 이어붙여 주머니를 만들고 버선본을 보관하였다. <그림 7>은 버선본집 사진이다.



① 자수문양, p.238



② 자수문양, p.240



③ 여인의향기, p.72



④ 보자기 예술로 승화된 실용, p.115

<그림 7> 다양한 버선본집의 예

<그림 7>의 ①은 곁을 홍색의 모직물, 안은 녹색의 명주를 사용하여 만든 버전본집으로 여미는 곳은 단추를 달아 고리에 끼우도록 만들었다. 봉황과 박쥐, 새와 나비를 수놓아 문양은 동물문만 단독적으로 수놓은 형태이고 충전형 배치구도이다. 여기에 사용된 자수기법은 평수와 징금수인데 무늬 안을 여러 가지 색으로 나눠서 수놓았다.

②는 홍색의 모직물로 만든 버전본집이다. 가장자리를 검은색 천으로 둘러 선장식을 하였고 홍색의 매듭단추와 실고리로 여미 수 있도록 만들었다. 복숭아를 물고 있는 학, 석류와 복숭아, 꽃을 수놓아 동물문+식물문의 형태이고 배치구도는 충전형이다. 여기에 사용된 자수기법은 평수, 가름수, 금사로 징금수를 사용하였다.

③은 갈색의 천으로 만든 버전본집이다. 여밈부분은 매듭단추와 고리를 사용하였고 가장자리에 자주색의 선을 대었다. 뒷면을 확인할 수 없으나 앞면만 보면 식물문의 형태이고 여기에 사용된 자수기법은 평수와 징금수 등이 사용되었다.

④는 곁은 홍색모직, 안은 두록색 명주로 되어있고 평수로 바위와 꽃, 학을 회화형으로 수놓고 테두리는 징금수 기법을 사용하였다. 가운데에는 매듭단추를 달았다.

6) 인두판집

인두판집은 인두판을 넣어 보관하는 주머니로 직사각 형태이다. 보통은 면으로 만들어 사용하는데 혼수용일 경우 신부가 단의 소재에 자수를 놓아 시집갈 때 가져가기도 하였다. 다림질을 하는 인두판에도 씨우개를 하여 수를 놓아 장식한 것으로 보아 조선시대 여인네들이 소품 하나하나 아름답게 꾸미기를 좋아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8> 의 ①을 보면 청색, 홍색 단으로 가장자리를 대고 안에는 연두색의 단으로 만들고 네 귀퉁이와 아랫면에는 홍색 술을 달아 장식한 것을 볼 수 있다. 중앙에는 모란과 두 마리의 나비를 수놓아 동물문+식물문이고 의 복합형 형태이고 배치구도는 회화형이며 평수, 매듭수, 느낌수, 이음수, 가름수기법이 사용되었다.

7) 자집

자집은 길이가 길어 보관이 용이하지 않은 자를 폭이 좁은 긴 직사각형태의 주머니에 넣어 보관하는데 자집의 끝에 고리를 만들어 벽에 걸어두어 찾기 쉽도록 만든 것도 있다. <그림 8> 의 그림 ②를 보면 홍색 단으로 만들어진 긴 자집을 따라 매화가 줄기를 길게 뻗어있는 형태로 수를 놓았다. 길이가 긴 직사각형의 천 2장의 둘레를 노란색 실로 사슬뜨기를 하여 연결하고 덮개를 만들었다. 덮개가 접히는 부분에는 끈을 달아 자가 쉽게 빠져나오는 것을 방지하고 벽에도 걸 수 있도록 만들었다. 자수기법은 평수와 느낌수, 씨앗수를 사용하였고 식물문만 사용했다.

8) 향낭

향낭은 향을 주머니에 넣어 몸에 지님으로서 향기를 풍기게 하고 주머니에도 자수 등의 장식을 하여 발향과 장식의 용도로 쓰였다. 낭의 모양은 석류(石榴)를 본뜬 것도 있고 보통 엽낭형으로 둥글게 한 것도 있어 다양하다. 그 속에 넣는 향은 대부분 중국에서 들여온 왜래품이었다(김용숙, 1987). 향낭은 보통 향기가 밖으로 잘 빠져나가도록 하기 위하여 성근조직의 직물을 사용하여 만들고, 단의 소재에 자수 놓아 꾸민 향낭도 있다. 여인들의 단속곳 위에 달아 밖으로 드러내지 않음으로서 움직임 때마다 은은한 향이 풍기도록 하였다. <그림 8>의 사진③은 자수를 하지 않고 성근 갑사를 이용하여 만든 향낭으로 자수를 하지 않음으로서 자칫 밋밋해 질 수 있으나 딸기술을 달아 다른사람들 에게 보이지 않는 곳에 사용하더라도 장식을 하던 선조들의 미적감각을 엿볼 수 있다.

9) 필낭

필낭은 붓을 담고 다니기 위한 주머니이다. 귀주머니보다 길이가 긴 직사각형의 주머니를 만들고 입구부분을 두루주머니에 주름을 3개 접은 것과 같은 모양이나 납작한 부분이 앞뒤로 오도록 하여 주름을 고정시키고 가지고 다니기 용이하도록 구멍을 뚫고 끈을 꿰어 묶는 형태와, 직사각형의 한 장에 긴 천을 사선으로 접어 통을 만들면서 이어붙여 만들고 입구부분을 접어 끈을 꿰거나 매듭을 달아 만드는 형태가 있다. <그림 8>의 사진 ④는 조선조 후기 궁중에서 사용하던 필낭으로 하늘색 단으로 만들고 홍색의 끈과 매듭으로 장식하였다. 앞·뒤에 빨간색으로 수(壽)와 희(囍), 춘추(春秋)를 수놓고 박쥐, 서각 등의 보문을 여러 가지 색으로 수놓아 모두 금사로 징금수를 놓아 테두리를 둘렀다. 사용된 자수기법은 평수와 징금수이다.

10) 가위집

가위집은 가위를 녹슬지 않게 하고 끝이 뾰족해서 위험할 수 있는 가위를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였다. 가위집은 보통 종이를 가위의 모양에 맞게 배접하여 천을 붙이고 가위가 들어가는 입구를 제외한 둘레를 사슬뜨기를 하여 앞뒤를 이어붙여 만든다. 배접한 종이에 천을 붙일 때 밋밋하게 만들 수 있으나 <그림 8>의 ⑤처럼 조각을 이어붙인 천이나 자수를 놓은 천을 사용하여 장식성을 높이는 경우도 있다.

11) 바늘집주머니

침선도구 중 중요한 도구중의 하나인 바늘을 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만든 주머니이다. 천으로만 만들면 바늘이 통과할 수 있으므로 배접지를 사용하여 직사각형이나 심엽형의 모양으로 만들어서 가지고 다니기 편하도록 끈을 달아 사용하였다. <그림 8>의 ⑥은 심엽형의 바늘집주머니 인데 아래쪽의 배접지 안에 바늘을 두고 빠져나오지 않도록 배접한 것을 씌워 사용하였다. 진한 분홍색의 문단에 꽃과 새,

박쥐를 평수, 가름수로 수놓고 징금수로 둘렀다. 충전형의 구도로 볼 수 있다.

12) 약낭

약낭은 구급약, 환약 등을 가지고 다닐 때 용이하도록 만든 주머니이다. <그림 8>의 ⑦을 보면 긴 직사각형을 사선으로 바느질하여 한쪽만 트인 형태를 만들고 입구부분에 주름을 잡아 끈을 꿰고 묶은 뒤 뚜껑을 덮은 형태이다. 궁중에서 사용되었던 약낭이어서인지 회화문의 화려한 수를 놓은 것을 볼 수 있다.

13) 부싯돌 주머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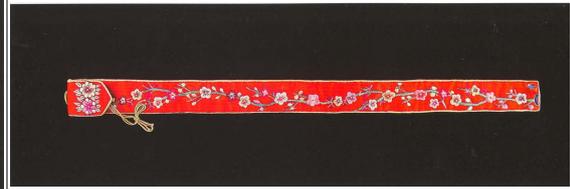
부싯돌 주머니는 라이터가 없던 시절 불을 피우기 위한 용도인 부싯돌을 가지고 다니기 위하여 만든 주머니이다. <그림 8>의 사진 ⑧은 제주민속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부시주머니인데 직사각형의 형태에 앞면 중앙에 트임이 있고 끈을 달아 실용성을 더하였다. 겉감은 단의 소재로 만들어지고 안감은 면으로 만들었으며 앞면에는 홍색실로 역(域)이라고 자수가 평수로 놓아져 있다. 제주에서 목민들이 산에 갈 때 가지고 다닌 것으로 생각된다.

14) 도장주머니

도장주머니는 도장을 담아두고, 도장을 가지고 다닐 때 인주가 옷에 묻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한 작은 주머니이다. 형태는 필낭과 같으나 크기가 도장이 들어갈 정도의 작은 크기이다.



① 인두관집
(자수문양, p.211)



② 자집
(자수문양, p.281)



③ 향낭
(한국전통매듭, p.170)



④ 필낭
(조선조후기 궁중복식, p.204)



⑤ 가위집
(우리규방문화와 침선소품, p. 150)



⑥ 바늘집 주머니
(옛속옷과침선, p.136)



⑦ 약낭
(조선조후기궁중복식, p.198)



⑩ 부싯돌 주머니
(제주민속박물관 소장)

<그림 8> 기타 다양한 주머니의 예

2. 보자기류

보자기는 물건을 싸거나 덮기 위하여 천 등으로 네모지게 만든 물건이다. 보자기의 명칭은 표준말인 보자기 외에 복(袱), 보(褌), 보자(褌子), 복(福) 등으로 불리어 왔고 각 지방의 방언 명칭까지 더하면 매우 다양하다. 보자기는 한자로 緇, 褌, 袱 등으로 표기하는데 조선 중기에 간행된 문헌에는 ‘袱’으로, 후기에는 주로 ‘褌’, ‘褌子’, ‘福’ 등으로 쓰였다. 우리나라에서 보자기가 발달하게 된 원인은 여러 가지로 살펴 볼 수 있으나 우리나라는 위도상으로 추운 나라에 속하며 국토는 좁고 인구밀도는 높은 반면 천연자연이 적은 나라이다. 그러므로 주거공간이 낮고 좁은 것이 주생활의 일반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주거공간이 매우 협소했으므로 자리를 차지하지 않는 물건이 가재도구로서 바람직했다. 보자기는 개폐에 따라 용적의 신축이 자유로와 보관 혹은 운반 용구로 사용할 때는 용적을 최대한 이용하였다가 사용하지 않을 때는 작게 접어들 수 있으므로 그런 가재도구로서 적격이었다. 이런 편의 때문에 자연히 보자기가 널리 쓰이게 된 것으로 보인다(허동화, 2006). 또한 보자기의 발달은 의례적인 측면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물건을 주고받을 때 그 물건을 싸거나 덮어 보호하면서 한편으로는 아름답게 장식하는 데 쓰였고 사람들 사이에 오가는 물건에 각듯한 예의를 담은 마음의 표현으로 전달될 수 있게 했으며, 사용하다 남은 작은 조각천을 이용하여 생활용품을 창조하는 기쁨을 누렸으며 또한 정성 들여 만든 보자기를 통해 복을 얻거나 줄 수 있을 거라는 기복신앙적 요소가 많이 작용 하였던 것으로 본다(안은숙, 1996).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는 가장 오래된 유물로 알려진 선암사의 탁자보는 고려 중기의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것이 탁의(卓依)라는 명칭으로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은 이런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현재 전해지고 있는 궁보(宮褌)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아청운문단궁보(鴉靑雲紋緞宮褌)는 현종(1659~1674년 재위)의 따님 명안공주(明安公主)가 혼례에 사용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허동화, 김현희, 2000). 문헌에 나타난 보자기의 기록을 보면 <표 2>와 같다.

<표 2> 문헌에 나타난 보자기에 관한 기록

연도	용도	기록내용	출처
	<p>왕비가례시 납채, 납징, 고기, 책비, 친영, 동뢰, 빙재, 별궁예물, 정친예물, 납징예물, 본방예물, 대전법복, 의대, 중궁전법복, 의대, 대내진배, 별궁진배, 동뢰연기명, 별궁기명, 수라간에서 쓸 물건, 연여의장, 상궁 4인이 입을 옷, 유모1인, 시녀 4인이 입을 옷, 말을 타는 나인 4인이 입을 옷, 보행하는 나인 4인이 입을 옷, 본궁 나인 2인이 입을 옷, 귀유치내관 20인이 입을 옷, 사약 2인이 입을 옷, 별감 16인이 입을 옷, 정사 1인, 부사1인, 주인1인, 빈자1인, 별궁을 장무하는 내관이 쓸 물건, 별궁의 장방내관이 쓸 물건, 승전색 내관이 쓸 물건, 장방 내관이 쓸 물건, 등축방에서 쓸 물건, 사약별감방에서 쓸 물건, 배설방, 서방색, 임금의 장인 댁으로 수송하는 물품, 내수사에서 수송하는 물품44품목</p>	<p>홍색, 분홍색, 붉은색, 빨간색, 대홍색, 왜주홍, 자주색, 자적색, 백색, 초록색을 사용한 초, 주, 명주, 김, 세목, 세마, 비단, 구름무늬 중국산 고급비단, 구름무늬 대단, 방사주에 금줄을 올린천, 정포, 저포, 광적의 소재로 만든 겹보, 홀보, 보자기, 상보, 핫보자기, 유가(숨을넣어 만든 보자기).</p>	
<p>영조 25년 (1749년)</p>	<p>왕세자가례시 사용될 납채, 납징, 고기, 책비, 친영, 동뢰, 임헌초계, 예여우방중, 조현례, 빙재, 별궁예물, 정친예물, 납징예물, 본방예물, 세자궁법복, 의대, 빈궁법복, 의대, 세자궁진배, 별궁진배, 동뢰연기명, 세자궁기명, 별궁기명, 수라간에서 쓸 물건, 연여의장, 상궁4인이 입을 옷, 유모1인, 시녀 4인이 입을 옷, 말을 타는 나인 4인이 입을 옷, 보행하는 나인 4인이 입을 옷, 본궁나인 2인이 입을 옷, 귀유치 내관 20인이 입을 옷, 사약 2인이 입을 옷, 별감 12인이 입을 옷, 대전 별감 15인이 입을 옷, 정사 1인, 부사1인, 주인1인, 빈자1인, 당직하는 내관들이 쓸 물건들, 별궁을 장무하는 내관들이 쓸 물건들, 별감이 쓸 물건들, 사약방, 본방수송, 내수사에서 수송하는 물품 45품목</p>	<p>분홍색, 붉은색, 홍색, 짙은 붉은빛, 대통색, 자주색, 자적색, 백색의, 명주, 세마, 세목, 김, 무명, 베, 초, 주, 구름무늬 중국산 고급비단, 방사주, 구름무늬대단, 인문 정포, 면포, 모시를 사용한, 보자기, 홀보, 겹보, 상보, 핫보자기.</p>	<p>국혼정례</p>
	<p>숙의가례시 빙재, 독뢰연, 조현례, 의복, 유모1인, 말을 타는 여종 6인이 입을 옷, 보행하는 여종 2인이 입을 옷, 기명, 독뢰연</p>	<p>붉은색, 분홍색, 백색을 사용한, 명주, 면포, 모시로 만든, 홀보, 겹보, 상보.</p>	

	에 쓸 물건, 별궁기명, 가례 때 수송하는 물품, 내수사에서 수송하는 물품, 동뢰연에 배설한 물품, 어제숙의가례편하제에 사용할 14품목		
	대군가례시 납채, 납폐, 전안, 동뢰, 조현례, 빙재, 수폐, 대군의복, 부인의복, 유모1인, 말을 타는 여종 4인이 입을 옷, 보행하는 여종 2인이 입을 옷, 징씨 6인이 입을 옷, 견마부 2인이 입을 옷, 조례 3인이 입을 옷, 기명, 가례 때 수송하는 물품, 내수사에서 수송하는 물품, 전안과 동뢰연에 배설한 물품 19품목.	붉은색, 분홍색, 백색, 남색을 사용한, 명주, 정포, 면포로 만든 겹보, 홑보, 상보, 보자기	
	왕자가례시 납채, 납폐, 전안, 동뢰, 조현례, 빙재, 수폐, 대군의복, 부인의복, 유모1인, 말을 타는 여종 4인이 입을 옷, 보행하는 여종 2인이 입을 옷, 징씨 6인이 입을 옷, 견마부 2인이 입을 옷, 조례 3인이 입을 옷, 기명, 가례 때 수송하는 물품, 내수사에서 수송하는 물품, 전안과 동뢰연에 배설한 물품 19품목	붉은색, 분홍색, 백색, 남색을 사용한, 명주, 세목, 정포, 면포로 만든, 겹보, 홑보, 보자기, 상보	
	공주가례시 납채, 납폐, 전안, 동뢰, 현구고례, 빙재, 공주의복 의빈의복, 유모1인, 보모1인, 말을 타는 여종 4인이 입을 옷, 보행하는 여종 2인이 입을 옷, 징씨 6인이 입을 옷, 견마부 2인이 입을 옷, 조례 3인이 입을 옷, 기명, 가례시수송, 내수사수송, 전안동뢰연 배설 19품목	붉은색, 분홍색, 백색, 남색을 사용한, 명주, 깃, 정포, 면포로 만든, 겹보, 홑보, 상보, 보자기	
	옹주가례시 납채, 납폐, 전안, 동뢰, 현구고례, 빙재, 옹주의복, 의빈의복, 유모1인, 보모1인, 말을 타는 여종 4인이 입을 옷, 보행하는 여종 2인이 입을 옷, 징씨 6인이 입을 옷, 견마부 2인이 입을 옷, 조례 1인이 입을 옷, 기명, 가례 때 수송하는 물품, 내수사에서 수송하는 물품, 전안과 동뢰연에 배설할 물품 19품목	붉은색, 분홍색, 백색, 홍색을 사용한, 명주, 정포, 세목, 면포로 만든, 홑보, 겹보, 상보, 보자기	
영조 28년 (1752년)	대전법복(大殿法服)의 평천관, 면복, 적말, 적석, 원유관, 강사포 보관시	번홍색 정주 홑보자기, 햏보자기	상방정례 1권
	세자궁법복(世子宮法服)의 평천관, 원유관, 강사포, 적말과 적석 보관시	번홍색 정주 홑보자기, 햏보자기	
	대전(大殿)에서 탄일진상, 절일진상, 중삼, 단오, 추석, 동지, 간삭 진상, 년례염람차	번홍색 정주 홑보자기, 햏보자기, 백정포 홑보자기	

내입, 점하단자, 년별진배시 사용		
대왕대비전(大王大妃殿)에서 절일진상, 정조, 중삼, 동지, 간삭진상, 년별진배시 사용	번홍색 정주 홀보자기, 백정포 홀보자기	
중궁전(中宮殿)에서 절일진상, 정조, 중삼, 단오, 간삭진상, 년례진상시 사용	번홍색 정주 홀보자기	
세자궁(世子宮)에서 생진진헌, 절일진상, 정조, 중삼, 단오, 동지, 간삭진상, 년별진배시 사용	번홍색 정주 홑보자기, 홀보자기	
빈궁(嬪宮)에서 생진진헌, 절일진상, 정조, 중삼, 단오, 추석, 동지, 간삭진헌, 년별진배시 사용	번홍색 정주 홀보자기	
현빈궁(賢嬪宮) 생진진헌, 절일진상, 정조, 중삼, 단오, 동지, 간삭진상, 년례진배시 사용	번홍색 정주 홀보자기	
대전면복, 봉사포, 평천관, 원유관, 적석, 옥색방사주요대, 금보, 보록, 입기사시의물, 청사피체통개, 담통개, 오봉산병풍, 심첩서병풍, 관안괘, 반염포육, 반염포좌자, 공정책, 연두건, 청금복, 상시복첩리, 청초금도다익장립, 람주오세전삼, 대홍안보, 전삼, 수영전독나육, 영책진본소입 보관시 사용	번홍색 정주 홀보자기, 번홍색 정주 소갑(小甲)보자기, 대홍주 보자기, 청면포 홀보자기, 자주색 정주 홀보자기	상방정례 2권
세자궁 관례시(世子宮 冠禮時)사용	대홍주 보자기	
국혼(國婚)시 의대, 중궁전법복, 납채, 납징, 고기, 대내진배, 별궁진배, 별궁기명시 사용	홍주 홀보자기, 겹보자기, 대홍주 보자기, 백정포인문 홀보자기, 홍주면포 겹보자기, 자적주 홑보자기	
세자궁가례법복(世子宮嘉禮法服)의 빈궁법복, 세자궁진배, 별궁진배, 별궁기명 시 사용	홍주 홀보자기, 백정포인문 홀보자기, 홍주면포 겹보자기, 홍주 홑보자기	상방정례 3권
숙의가례의복(淑儀嘉禮衣服)의 기명에 사용	홍주 홀보자기, 홍주 겹보자기,	
대군가례의복(大君嘉禮衣服)의 납채, 납폐, 동뢰, 기명에 사용	납주 겹보자기, 홍주 홀보자기, 홍주 겹보자기, 백정포인문 홀보자기, 홍주면포 겹보자기	
공주가례의복(公主嘉禮衣服)의 납폐, 동뢰, 기명에 사용	홍주 홀보자기, 홍주 겹보자기, 백정포인문 홀보자기, 홍주면포 겹보자기	

<표 2>는 <국혼정례>와 <상방정례>에 나타난 보자기의 기록을 정리한 것이다. <국혼정례>의 왕비가례, 왕세자가례, 숙의가례, 대군가례, 왕자가례, 공주가례, 옹주가례의 보자기에 관한 기록을 보면 색상은 홍색, 분홍색, 붉은색, 짙은 붉은색, 빨간색, 대홍색, 왜주홍색, 자주색, 자적색, 초록색, 남색, 백색으로 대부분 붉은계열의 색상이 사용되었고, 소재는 초, 주, 명주, 깃, 세목, 세마, 비단, 구름무늬 중국산 고급 비단, 구름무늬 대단, 방사주에 금줄을 올린 천, 정포, 저포, 광적, 무명, 베, 방사주, 인문정포, 면포, 모시가 사용되었으며 구성방식은으로는 홀보자기, 겹보자기, 핫보자기와 보자기라고만 명시되어 있고 구성방식을 밝히지 않은 보자기도 있었다. 용도는 대부분이 혼례시 사용할 물건을 싸기 위한 보자기였고, 덮는 용도의 상보도 있었다.

<상방정례>를 보면 보자기는 1폭에서 8폭 크기까지 있는데 싸 두는 물품의 종류에 따라 보자기의 폭수, 형태, 재료가 명시되어 있다. 보자기의 종류를 보면 번홍색 정주, 백정포 인문, 대홍주, 청면포, 자주색 정주, 홍주면포로 만든 홀보자기, 겹보자기, 핫보자기, 소갑 보자기로 물건을 싸거나 덮는데 사용되었다. 상방정례에 기록된 보자기는 국혼정례시 사용되었던 보자기보다 색이나 소재의 종류가 현저히 적고 검소하게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상방정례>와 <국혼정례>의 기록에 보이는 궁보의 색상이 홍색 위주인 이유는 조선 초기부터 황색을 중국 황제의 전용 색이라 하여 왕 스스로 황색을 피하고 자색을 국가의 색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자색은 왕의 전용 색으로 규정되어 일반 서민층은 물론 사대부층에서도 사용을 금했으며 양반층에 허용되었던 홍색도 때때로 금지하기도 했다(허동화, 2006). <그림 9>는 조선시대 보자기의 종류를 신분, 용도, 시문방법, 소재, 바느질구성법 으로 분류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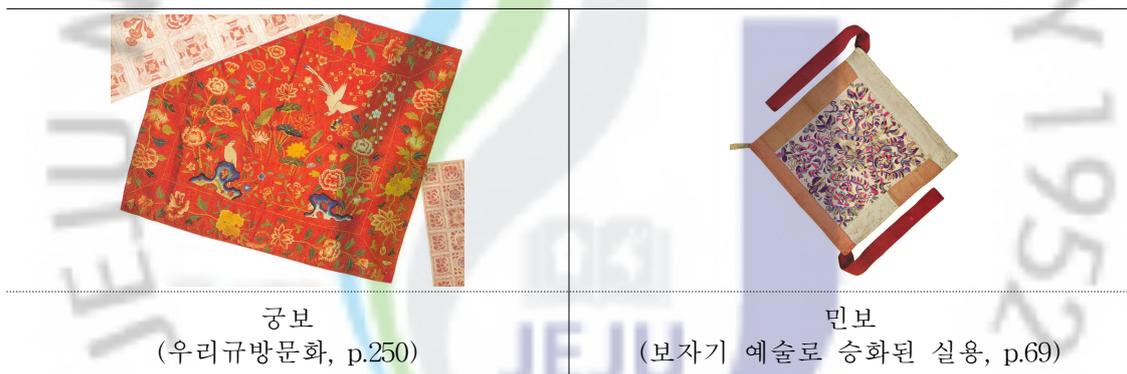


<그림 9> 보자기의 종류

<그림 9>와 같이 사용신분, 용도, 시문방법, 재료, 바느질방법에 따라서 구분한 보자기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 사용신분에 따른 보자기류

보자기는 사용하는 사람의 신분에 따라 궁보와 민보로 나눌 수 있는데, 궁안에서 사용하는 보자기를 궁보라고 하고, 궁 밖에서 민간인들이 사용하는 보자기를 민보라고 한다. 궁보는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보자기이므로 질 좋은 직물을 사용하고 화려한 것이 특징이며 조각보는 발견되지 않는 반면, 민보는 서민들이 옷등을 만들고 남은 직물을 모아서 이어 붙여 만든 조각보가 많고 모시나 면 등을 많이 사용하여 만드는 것이 특징이다. 궁보나 민보 모두 홑보와 겹보, 식지보, 누비보, 노래개보, 금박보 등 사용 용도나 종류가 다양한데 수보 중 궁보는 궁내 수방의 숙련된 궁녀들이 자수를 놓으므로 색감이 좋고 기술이 좋아 세련되었고 민보는 대체로 일반 서민들이 수를 놓아 투박한 멋이 있다. <그림 10>은 사용신분에 따른 보자기를 분류한 것이다.



<그림 10> 사용 신분에 따른 보자기의 예

<그림 10>의 궁보를 보면 국가의 색으로 삼았던 홍색의 천에 뛰어난 솜씨로 화려하게 수를 놓은 것을 볼 수 있다. 반면 민보는 투박한 자수에 보자기의 색이 탁하고 명주, 문주, 광목 등 남은 천을 모아 보자기를 만들었음을 알 수 있다.

2) 용도에 따른 보자기류

보자기는 용도에 따라 혼례용보, 밥상용보, 생활용품보, 일반보자기로 나눌 수 있는데 혼례용보는 기러기보, 예단보, 혼서지보, 함보, 폐백보 등으로 물건을 보관해 두는 용도보다는 의례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관혼상제 중의 하나인 혼인에 있어 혼서지, 사주 등을 그냥 보내지 않고 정성들여 만든 보자기에 넣음으로써 혼인 절차 하나하나를 귀중하게 여겼다.

기러기보는 보통 청홍색으로 앞뒤를 만들고 한쪽 귀퉁이에 끈을 달아 나무로 만

든 기러기를 싸기 용이하도록 만들어졌다. 기러기는 혼인 전날 함을 들일 때 기러기보에 싸서 신랑이 신부어머니에게 건네어준다. 예단보는 신부가 신랑의 식구들에게 예단을 보낼 때 사용하던 청홍색으로 만든 겹보 보자기이다. 혼서지보는 혼서지를 보낼 때 사용하던 보자기이고, 함보는 청홍의 보자기로 함을 쌀 때 사용하던 보자기로 네 귀퉁이에는 술장식을 하는데, 함의 아래에서부터 싸서 위에는 묶지 않고 금봉이라고 적혀진 종으로 봉한다. 폐백보는 혼례 후 신부가 신랑집에 들어갈 때 이바지 음식을 싸는 청홍보자기를 말한다. 사주보는 결혼 전 서로의 집에 신랑, 신부의 사주를 보낼 때 사용하던 보자기이다. <그림 11>은 혼례용보자기의 사진이다.

기 러 기 보	 <p data-bbox="507 972 743 1003">여인의 향기, p.140</p>	 <p data-bbox="979 972 1251 1003">옛 속옷과 침선, p.153</p>
사 주 보	 <p data-bbox="507 1317 743 1348">여인의 향기, p.138</p>	 <p data-bbox="979 1317 1251 1348">옛 속옷과 침선, p.152</p>

<그림 11> 다양한 혼례용 보자기의 예

<그림 11>의 기러기보를 보면 색상이 매우 화려하고 자수는 물론 끈과 술 등의 장식을 화려하게 한 것을 볼 수 있는데, 나무로 만들어진 기러기를 싸기 용이하도록 끈이 2개이상 달려있다. 사주보는 신랑, 신부의 사주가 적힌 종이를 싸서 보내는 보자기로 종이를 넣는 용도에 맞게 납작하게 접어 끈으로 묶을 수 있도록 만들었다.

밥상용보로는 밥상보, 찻상보 등으로 밥상보는 밥상위에 음식을 놓아둘 때 먼지가 앉거나 파리가 꼬이는 것을 막기위해 덮어두던 보자기로 겨울에는 보온을 위해 솜을 두거나 두터운 천으로 만들기도 하였는데 대부분 기름을 입힌 종으로 만든 식지보를 많이 사용하였다. 보자기의 중앙이나 네 귀퉁이에 끈장식을 달아 밥상에서 보자기를 치울 때나 보자기를 밥상에 묶어 고정시키기 편리하도록 만든 것도 있다.

옷감보는 옷가지 등을 싸두기 위하여 만든 보자기로 보통 서민들은 면이나 삼베, 모시로 만드는데 안에 넣는 옷의 소재에 따라 소재를 달리하여 만들었는데 크기는 반질그릇보나 받침보 보다 크게 만들고 네 귀퉁이에 끈을 달아 묶어 보관하기에 편리하도록 만들었다. 찻상보는 다기구에 먼지가 앉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다기구 위에 덮어 사용하였다.

생활용품 보는 반질그릇보, 받침보, 옷감보, 이불보, 홋대보 등으로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보자기의 종류로 서민들이 많이 사용하던 보자기이다. 반질그릇보는 반질그릇 안에 놓아두는 가위나 바늘, 실패, 인두, 자 등이 보이지 않도록 덮어두던 보자기이다. 받침보는 함이나 반질그릇 등을 가구 위에 놓아둘 때 가구가 긁혀 상하지 않게하고 장식을 더하기 위하여 만들어 놓아두던 보자기이다. 이불보도 이불 보관 시 더러움이 타는 것을 막고 보관하기 용이하기 위하여 만든 보자기로 면으로 많이 만들었고 네 귀퉁이에 끈을 달아 묶기 편하도록 하였다. 이불보나 옷감보 등은 안에 물건을 넣고 묶어놓았던 흔적 때문에 가운데 부분이 늘어난 유물이 많다. 홋대보는 방 안에 홋대에 옷을 걸어놓을 때 먼지가 앉는 것을 방지하고 벽을 장식하기 위해 사용하던 보자기이다. <그림 12>는 밥상용보와 생활용품보의 사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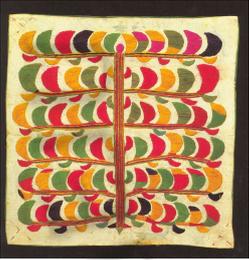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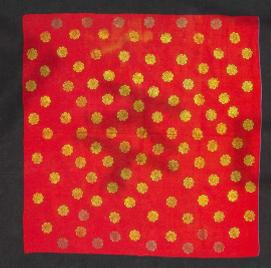
<그림 12> 밥상용보 및 생활용품보의 예

<그림 12>의 밥상보는 식지를 대거나 끈을 달지 않고 음식 위에 먼지나 파리가 앉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만든 밥상보이고, 홋대보는 백색의 면직물에 학, 나무, 대나무, 장미, 돌을 수놓아 장수에의 염원을 표현하였다. 가로 162cm, 세로160cm로 커다란 홋대보를 옷을 걸어놓는 홋대에 달아 홋대와 옷에 먼지가 앉는 것을 방지하였다.

일반보자기는 특정한 용도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싸거나 덮는 용도로 사용되어 혼례용, 밥상용, 생활용품용 으로서 쓰이기도 한 다양한 용도로 사용된 모든 보자기이다.

3) 시문방법에 따른 보자기류

보자기에 시문방법에 따라 수보, 당채보, 금박보, 직문보 판보 등이 있다(그림 13). 수보는 명주, 모, 면 등 여러 소재에 자수를 놓아 꾸며 만드는 보자기로 자칫 밋밋해 질 수 있는 보자기에 장식적 요소를 더하고 귀한 물건을 보관하는 보자기에 정성을 들여 자수를 놓아 보관용도인 보자기에도 공을 들인 것을 볼 수 있다. 수보에 사용된 자수문양의 종류는 동물문, 식물문, 문자문 등 다양하나 가장 특징적인 문양은 나무이다. 상서롭고 영험이 있다고 여기는 나무를 보자기에 수놓음으로써 기복을 나타내었다. 수보는 정성껏 제작하여 후대에 전해진 유물이 많은 편이다. 당채보는 보자기의 겉감에 당채로 그림을 그려서 만든 보자기이고 금박보는 옷에 많이 사용하는 금박을 보자기의 겉면에 문양을 찍어 아름답게 장식을 한 보자기이다. 직문보는 보자기를 만든 후 장식을 하는게 아니라 직물을 직조할 때 문양을 두어 짠 직물로 만든 보자기이고, 판보는 판화처럼 나무에 문양을 새겨서 색을 칠한 뒤 보자기를 만들 전에 찍어 장식한 보자기이다. <그림 13>은 시문방법에 따른 보자기 사진이다.

			
①수보 (한국의미, p.111)	②수보 (한국의미, p.112)	③수보 (자수문양, p.296)	④수보 (옛속옷과침선, p.151)
			
⑤당채보 (한국의미, p.113)	⑥금박보 (한국의미, p.112)	⑦직문보 (우리규방문화, p.267)	⑧판보 (여인의향기, p.64)

<그림 13> 시문방법에 따른 다양한 보자기의 예

<그림 13>의 수보 ①,②,③,④를 보면 정사각형의 보자기에 자수를 전체적으로 식물문, 식물문+동물문, 식물문+동물문+문자문+자연문의 유형으로 평수, 이음수, 징금수를 놓고 장식이 없는 것도 있고 술이나 끈을 달기도 하였다. ⑤는 보자기에 당채로 좌.우가 대칭되도록 그리고 끈을 달았다. ⑥홍색의 보자기에 금박으로만 산점형으로 장식한 보자기이다. ⑦은 문양이 있는 직물과 문양이 없는 직9물의 조각을 이어 만들고 술로 장식한 보자기 이고, ⑧은 꽃,새, 수(壽) 등이 조각된 나무판에 검은색을 칠한 뒤 면보자기에 찍어내고 빨간색 끈을 달았다.

4) 소재에 따른 보자기류

보자기의 소재에 따라 명주보, 면보, 모시보, 식지보 등이 있는데 앞면, 뒷면의 소재가 다른 경우나 조각보의 경우 다른 소재로 조각을 이은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같은 소재로 만들었다. 식지보는 위아래 모두 식물성기름을 먹인 한지를 사용한 경우도 있고 뒷면은 식지를 대고 윗면에는 자수를 놓은 천이나 밋밋한 천 혹은 조각을 이어붙인 천 등을 사용한 경우도 있다. 기름먹인 종이를 물건에 사용한 예는 우산이나 머리에 쓰는 갓도 있다. 이러한 보자기들은 보통 감싸는 물건에 따라 소재를 달리하는데 한예로 면이불 등을 싸는 보자기는 면으로 만들고 귀중품을 싸는 보자기는 가격이 높은 명주나 단소재로 만든 보자기를 많이 사용하는 편이다. <그림 14>는 소재에 따른 보자기의 종류를 나타낸 표이다.

			
①명주보 (자수문양, p.294)	②면보 (여인의 향기, p.55)	③모시보 (여인의 향기, p.45)	④식지보 (보자기 예술로 승화된 실용, p.277)

<그림 14> 소재에 따른 다양한 보자기의 예

<그림 14>의 ①은 명주보로 다른 보자기들 보다 광택이 좋고, ②는 면보로 조각에 자수를 놓고 이어 붙였는데, 위쪽 조각이 다른 곳과 크기가 다른 것으로 보아 남은 면에 자수를 놓고 조각을 잇다보니 천이 모자라서 크기가 달라진 것으로 보인다. ③은 모시보로 모시에 직접 수를 놓지는 않고 다른 소재의 천에 수를 놓은 것을 모시보의 귀퉁이에 붙이고 끈을 달았다. 조선시대 규방소품 중 모시에 직접 수

를 놓은 경우는 드물었다. ④는 식지보로 천에 음식이 묻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름을 먹인 종이를 아래에 대고 위에는 천에 수를 놓아 아름답게 장식한 보자기이다.

5) 바느질 구성법에 따른 보자기류

보자기는 바느질 구성법에 따라 홀보, 겹보, 솜보, 누비보, 조각보 등이 있다(그림 15). 안감을 대지 않고 홀겹으로 만든 홀보는 뒷면이 그대로 드러나 보이므로 시접 처리를 잘 하여야 하기 때문에 곱솔이나 짬솔의 방법으로 바느질하여 마무리한다. 솔기 부분의 실이 풀리지 않도록 이중으로 홈질을 해서 솔기를 썼으므로 홈질한 자국은 드러나게 되는데, 우리 선조들은 특이하게 천과 같은 색실을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천을 바탕으로 두드러져 보이는 색실을 써서 바느질 땀을 선명히 보여 주었다. 이렇게 보자기 전면에 바느질 궤적을 드러내어 바느질이 천조각을 이어 붙이기 위한 수단에 그치지 않고 보자기를 장식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우서혜, 2005). 안감과 겹감 두장으로 만드는 겹보는 보통 앞뒤의 구별을 두고 겹감에 조각을 이어 붙인 조각보의 경우에도 뒷장에는 보통 한 장으로 된 안감을 댄다. 안감을 대는 방법에는 겹감과 안감의 크기를 같이하여 위에서 보았을 때 안감이 보이지 않는 경우와 안감이 겹감의 테두리를 감싸도록 하는 방법이 있는데 겹보는 제작시 겹감의 뒷면이 보이지 않으므로 시접을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 솜보는 보자기의 겹감과 안감 사이에 솜을 넣는 보자기로 깨지기 쉬운 물건을 보관할 때 주로 사용하였는데 보자기 안에 다시 솜보를 넣는 경우가 많았으므로 끈을 달지 않은 형태가 많다. 누비보는 솜보와 같이 깨지기 쉬운 물건을 보관하거나 보온의 용도로 밥이 식지 않도록 사발을 싸는 사발보도 있다. 누비를 하는 방법으로는 누비 간격에 따라 잔누비, 중누비, 오목누비, 납작누비, 색누비 등이 있다. 누비보는 솜을 넣어 직선 또는 기하학적인 패턴이 많다. 서민들이 만들던 보자기는 직물이 귀한 시기였으므로 대부분 옷이나 의류소품을 만들다 남은 천으로 만들어 조각을 이어붙인 조각보가 많았는데 사각형이나 삼각형을 이어붙인 형태도 있고 남은 조각의 모양 그대로 이어 붙여 만드는 형태도 있다. <그림 15>는 바느질 구성법에 따른 보자기의 종류를 나타낸 표이다.



<그림 15> 바느질 구성법에 따른 보자기의 예

<그림 15>의 ①을 보면 안감이 겉감의 테두리를 감싸는 방법으로 만들어진 겹보이다. 조각이 많으므로 겉감의 뒤가 지저분한 것을 보이지 않게 해주는 역할도 한다. ②는 천에 솜을 누비고 꽃과 나비, 불로초 문양으로 자수를 놓고 기름종이를 대어 밤상보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③은 겹보이자 조각보로 작은조각에 모두 수를 놓고 이어붙인 뒤 시접이 보이지 않도록 안감을 겉감의 크기와 같이 대고 네 귀퉁이에 끈을 달았다.

3. 기타 소품류

기타 침선소품은 규방공예품 중 주머니나 보자기 이외의 것들로 골무, 바늘꽃이, 열쇄패, 노리개, 인두판, 베갯모, 실패 등이 있다. 바깥출입이 자유롭지 못했던 조선시대 여인네들은 규방에서 이러한 침선소품에 자수를 놓아 장식을 하고 문양으로서 염원을 나타내었다. 조선 후기의 작품으로 추측되는 작자미상의 한글 수필 <규중칠우쟁론기>에서 골무를 감투할미라 칭하고 “나는 매양 세요의 귀에 질리었으되 낮가죽이 두꺼워 견딜만하고 아모 말도 아니 하노라.” 라고 표현하여 조선시대에도 골무를 사용하였고 규방 안에서 자주 사용하는 침선소품을 의인화 하여 표현한 것을 보면 규방 안에서의 문학적인 미도 꽃피웠음을 알 수 있다(이미석, 2006).

1) 골무

골무는 바늘질 할 때 손가락에 끼는 용구로 바늘로 인해 손가락에 상처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골무는 형겅, 색비단, 가죽 등을 사용하여 손가락 한 마디가 들어갈 정도 크기의 타원을 반 자른 모양으로 앞뒤판을 만들어 손가락이 들어가는 입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사뜨기를 하여 연결시켜 만드는데 종류는 자

수로 장식한 수골무, 장식이 없는 천에 이음새부분에만 사뜨기 한 민골무, 여러 조각의 천을 덧대고 장식한 조각골무, 골무의 중앙에 무명실을 꼬아 가운데서부터 돌려가며 고정시켜 만든 경상도골무가 있다(그림 16). 골무에 들어가는 자수문양은 골무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단일문양이 들어간 것이 대부분이다. <그림 16>은 여러 가지 골무의 사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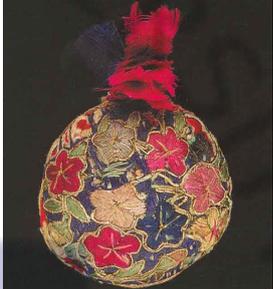


<그림 16> 다양한 골무의 예

<그림16>의 ①,②,③은 평수로 자수를 놓고 주위를 금사징금으로 두른 자수골무이다. 자수골무는 갓 시집을 간 새색시가 동네사람들에게 선물로 나눠주는 용도로도 많이 사용되었다. ④는 아무런 무늬 없이 천을 썬 배접지 2장을 사뜨기로 연결한 민골무와 조각을 이은 것을 썬 배접지 2장을 연결한 조각골무, 자수를 놓은 천을 썬 배접지 2장을 연결한 자수골무가 있다. ⑤도 역시 민골무와 자수골무의 사진으로 자수골무는 모두 꽃을 수놓은 충진형의 유형으로 만들어졌다. ⑥은 바늘이 닿는 부분에 실을 꼬아 고정시킨 경상도골무이다.

2) 바늘꽃이

바늘꽃이는 바늘을 꽂아두기 위해서 만든 도구로 작고 위험한 바늘을 잃어버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안에 솜이나 머리카락을 채워 넣었다. 형태에 따라 원형, 사각형, 심엽형, 괴불형 등이 있는데 원형바늘꽃이는 정사각형의 천 15개를 창구멍을 남기고 이어 붙인뒤 솜을 넣어 창구멍을 막고 6군데를 실로 잡아 모양을 만들었고, 사각형 바늘꽃이는 정사각형의 방석모양으로 작게 만든 것이고, 심엽형은 하트모양을 앞 뒤 이어붙인 형태이고, 괴불형은 삼각형 모양으로 작게 만든 바늘꽃이 이다. 두께감이 없으면 바늘이 통과할 수 있으므로 너무 얇지 않도록 만들었다. <그림 17>은 여러 가지 바늘꽃이 사진이다.

원형 바늘꽃이		
	① 자수문양, p.225	② 자수문양, p.224
사각형 바늘꽃이		
	③ 자수문양, p.219	④ 여인의향기, p.71
심엽형 바늘꽃이		
	⑤ 자수문양, p.222	⑥ 자수문양, p.223

<그림 17> 다양한 바늘꽃이의 예

<그림 17>의 ①은 15개의 정사각형 조각으로 만드는 바늘꽃이인데, 10개의 조각에 꽃과 새, 파도를 수놓아 위와 아래에서 자수를 볼 수 있도록 조각을 이어 만든 바늘꽃이다. ②는 반구형 두 개를 맞붙여 만든 공 모양 바늘꽃으로 끈 고리가 한쪽면에 부착되어 있고, 내부는 머리카락으로 채워져 있다. 꽃의 외곽에는 금사 정금을 둘러 화려한 이미지를 준다. 바탕에 여백이 가득 찬 문양은 악(惡)한 것을 막는 주술적인 의미와 길상의 의미를 극대화하기 위한 표현으로 배갯모나 수저집 등의 수장식에도 종종 보인다(국립민속박물관, 2004). ③과 ④는 사각형 모양의 바늘꽃이로 단순해 보일 수 있는 정사각형에 자수를 놓고 술을 달아 장식을 더하였다. ⑤와 ⑥은 심엽형 바늘꽃이로, 모두 푼사로 꽃과 나비를 아름답게 수놓았다. 심엽 모양으로 만든 천 두개를 사뜨기로 잇고 술과 끈을 달아 장식하였다.

3) 배갯모

배갯모는 배개의 양옆을 막는 것으로서 나무에 천을 대거나 화각, 나전칠기로 만든 것도 있다. 배갯모의 모양으로는 원형과 직사각형이 있는데 음양사상에 따라 대부분 여성은 원형 배갯모를 사용하고, 남성은 직사각형의 배갯모를 사용하였다. 배갯모에 천을 댈 때 밋밋한 천을 댈 수도 있으나 잠잘 때 사람의 머리를 받치는 배개에 십장생문양이나 호랑이, 꽃, 포도, 박쥐문양을 수놓음으로서 불로장생, 용맹, 다남, 복 등을 기원하였다. <그림 18>은 여러 가지 배갯모의 사진이다.

<p>원형 베갯모</p>		
	<p>① 제주민속박물관 소장</p>	<p>②근세복식과 우리문화, p.123</p>
<p>직사각형 베갯모</p>		
	<p>③자수문양, p.319</p>	<p>④crafts of inner court, p.52</p>

<그림 18> 다양한 베갯모의 예

<그림 18>의 ①과 ②를 보면 동그란 테두리에 ‘亞’문양을 돌아가며 수놓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원형 베갯모에서 흔히 볼수있다. ③은 직사각형 베갯모로 천 안에 모란을 수놓았는데 모란은 부귀를 상징한다. ④는 육골침으로 베개 안이 6구역으로 나뉘어져 있고, 안을 구성하는 천이 베갯모에 바느질되기 때문에 베갯모 한면이 6개로 나뉘어져 있다.

4) 노리개

노리개는 한복 저고리의 고름이나 안고름 또는 허리춤에 차던 패물이다(이경자, 2005). 소재는 금, 은, 동에서부터 비취, 옥, 산호, 호박 등의 보석류, 호랑이 발톱, 수놓은 천 등의 재료로 박쥐, 매미, 거북, 나비, 가지, 고추, 표주박, 안경집, 방울 등 다양한 모양으로 만들고 매듭을 맺고 술을 달아 만들었다. 노리개의 용도로는 단순히 부를 나타내거나 장식을 하기 위한 것도 있고, 의미를 넣어 불로장생, 벽사, 부귀다남과 같은 염원이 담긴 것, 향을 넣어 발향하도록 만든 향주머니와 바늘을 담을 수 있도록 만든 바늘집을 노리개로 만들어 장식성에 실용성을 더한 것도 있다.

5) 인두판

인두판은 요즘의 다리미판과 같은 용도로 인두질을 할 때 쓰는 받침으로, 인두판을 만들 때는 나무판에 솜을 넣고 천을 씌워 만드는데 곁에 씌우는 천은 자주 빨아 사용할 수 있도록 특별한 장식을 하지 않은 면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고 혼수품일 경우에는 비단에 수를 놓아 만드는 경우도 있다. 보통 60~64cm에 두께 2cm 정도의 크기로 만드는 것이 일반적이다. 인두판 보관시 장 안에 넣어둘 수도 있으나 비단에 수를 놓은 것과 같이 아름다운 것들은 제작시 직사각형 중 짧은 쪽에 고리를 만들어 벽에 걸어둘 수 있도록 만들기도 하였다.

6) 열쇄패

열쇄패는 현대의 열쇄고리와 같은 역할인데 가지고 다니기에는 크기가 커서 장식 용도로 많이 사용하였다. 열쇄패의 모양은 사방으로 장식품을 이은 형태와 한쪽으로 늘어뜨린 형태가 있는데 열쇄패를 장식하는 것들은 동전, 장도, 괴불, 고추, 술 등 여러 가지가 있으며 벽사의미로 많이 사용되었다. 딸을 시집보낼 때 주기도 하였다.

7) 실패

실의 엉킴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아두는 것으로 보통 나무를 깎아 사용하는데 나무에 색을 입히거나 화각을 입힌 것, 자개를 박은 것, 나무 위에 천을 씌운 것 등이 있고 장식을 하지 않은 천으로 만든 것과 자수를 하여 만든 것도 있다. 직사각형, 정사각형에 네 면이 들어간 형태, 타원에 실을 감기 편하도록 가운데가 잘록하게 들어간 형태 등이 있다. <그림 19>는 노리개, 인두판, 열쇄패, 실패의 사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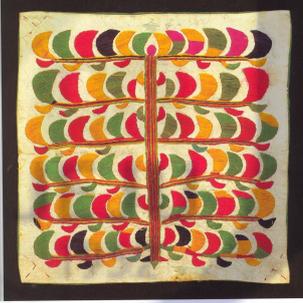
<p>노리개</p>		
	<p>①crafts of inner court, p.21</p>	<p>② 근세복식과 우리문화, p.103</p>
<p>인두판</p>		
	<p>③ 옛속옷과침선, p.133</p>	<p>④ 여인의 향기, p.88</p>
<p>열쇠패</p>		
	<p>⑤crafts of inner court, p.19</p>	<p>⑥ 여인의향기, p.145</p>
<p>실패</p>		
	<p>⑦crafts of inner court, p.104</p>	<p>⑧여인의 향기, p.71</p>

<그림 19> 기타 다양한 소품류의 예

<그림 19>의 ①은 매미노리개로 어린아이들이 주로 패용하였는데, 노리개 전체를 화려하게 수놓고 12개의 술과 구슬로 장식하였다. ②는 비취 발향 노리개로 향을 원통형으로 만들어 비취를 입히고 줄에 꿰어 구슬받처럼 늘였다. 향을 펜 중앙과 양끝에는 붉은 바탕에 모란, 천도, 쌍희자문 등 길상무늬를 수놓아 3단을 연결하였다. 상단의 좌우에는 홍색 딸기술을, 하단에는 홍색, 남색, 황색, 분홍색, 녹색의 오색딸기술을 늘어 꾸몄다. 궁중에서 나이든 상궁들이 치마 안에 찻다고 한다(경운박물관, 2003). ③과 ④는 모본단에 꽃과 나비, 새, 바위를 곱게 수놓은 인두관으로 혼수용으로 만든 것으로 보인다. ⑤는 쇠로 된 열쇠고리에 괴불, 끈, 술, 작은 안경집 등을 사방으로 달아 장식한 열쇠패이다. 식물문양과 동물문양, 문자문양 등을 수놓아 화려하게 장식하였다. ⑥은 낫쇠에 끈으로 동전을 연결하고 매듭과 술로 장식하여 만든 열쇠패이다. 매우 화려한 것으로 보아 장식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⑦은 직사각형 모양의 실패로 청색과 홍색의 바탕천에 평수, 이음수 등으로 모란을 수놓고 네 귀퉁이에 술로 장식하였다. ⑧은 타원의 모양에 가운데가 잘록하게 들어간 실패이다. 전체적으로 자수를 놓아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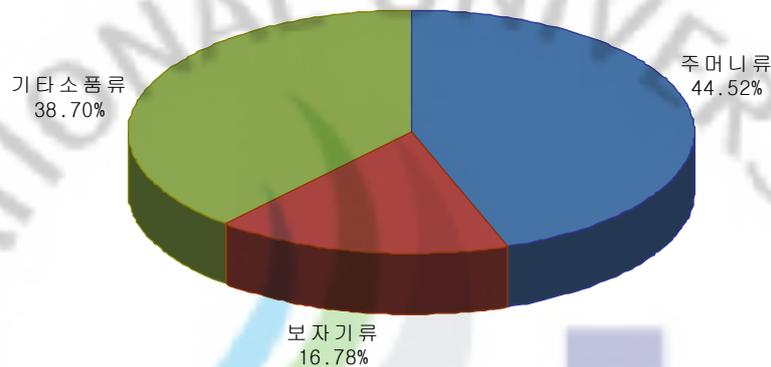
Ⅲ. 규방자수공예소품의 조형적 특성

조선시대 규방소품 중 자수가 들어간 규방자수공예소품을 박물관 유물을 통한 직접고찰방법과 박물관 도록 및 서적을 통한 간접고찰방법을 병행하여 선별하여 429점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그림 20>은 조선시대 규방자수공예소품의 유형이다.

주 머 니			
	우리옷과 장신구, p.153	자수문양, p.152	조선조후기궁중복식, p.198
보 자 기			
	자수문양, p.266	조선조후기궁중복식, p.204	자수문양, p.251
기 타 소 품 류			
	자수문양, p.293	한국의 미, p.111	자수문양, p.285
기 타 소 품 류			
	자수문양, p.255	한국전통복식2천년, p.146	자수문양, p.300

<그림 20> 규방자수공예소품의 유형

조선시대 규방자수공예소품의 유형별 출현율을 보면 주머니류(44.52%), 보자기류(16.78%), 기타 침선소품류(38.70%)로 주머니류의 비중이 월등하게 높다(그림 21). 우리 전통 한복에는 없는 주머니에 실용성과 장식적 요소까지 가미시킨 자수주머니류가 실생활에서 많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1>은 조선시대 규방자수공예소품의 유형별 출현율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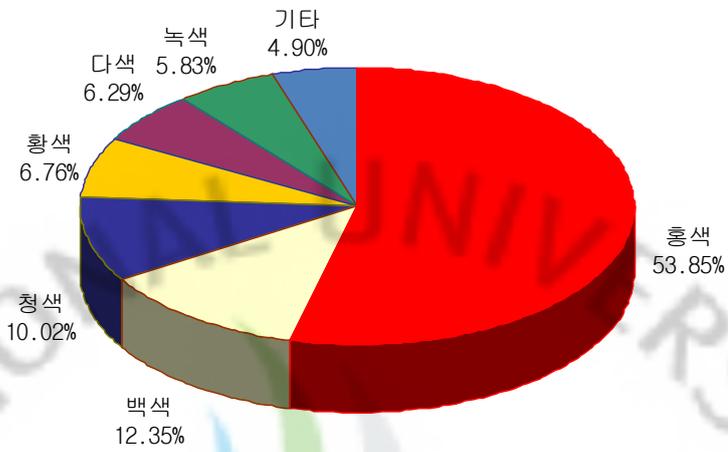


<그림 21> 규방자수공예소품의 유형별 출현율

규방자수공예소품의 색상, 문양, 소재, 자수기법, 장식기법에 나타난 특성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1. 색상

총 429점의 규방자수공예소품 색상별 출현율을 보면 홍색(53.85%), 백색(12.35%), 청색(10.02%), 황색(6.76%), 다색배색(6.29%), 녹색(5.83%), 기타(4.9%)의 순이었다(그림 22). 색은 세월이 지남에 따라 변색, 퇴색이 되었으나 색상은 자연염료를 사용하여야 했으므로 그다지 다양하지는 않았다. 홍색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이는 붉은 색이 귀신을 물리친다는 벽사의 의미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홍색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한 백색은 염료를 필요로 하지 않은 색으로 이 시기 가장 즐겨입던 흰옷을 만든 뒤 남은 자투리천을 모아 소품을 만든 것으로 보여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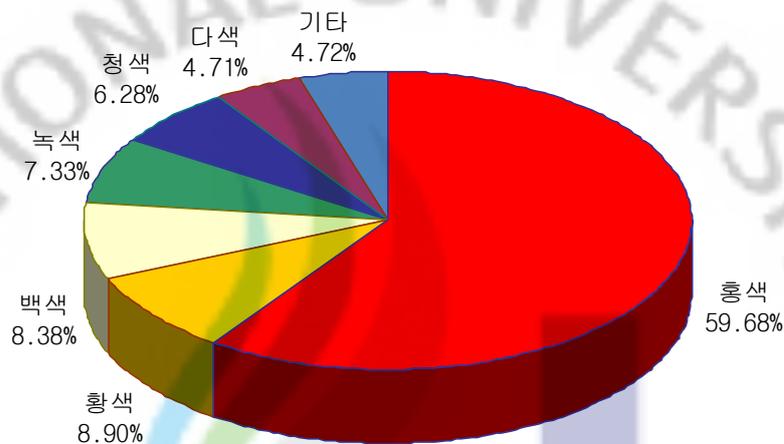
<그림 22> 규방자수공예소품에 나타난 색상의 출현율

<그림 23>은 조선시대 규방자수공예소품에 나타난 색상에 따른 분류를 나타낸 표이다.

홍색			
	여인의 향기, p.160	보자기예술로승화된실용, p.93	KOREAN PTTURNS, p.149
홍색			
	여인의 향기, p.86	보자기예술로승화된실용, p.138	자수문양, p.104
백색			
	자수문양, p.173	보자기예술로승화된실용, p.76	여인의 향기, p.171
청색			
	자수문양, p.172	보자기예술로승화된실용, p.77	자수문양, p.1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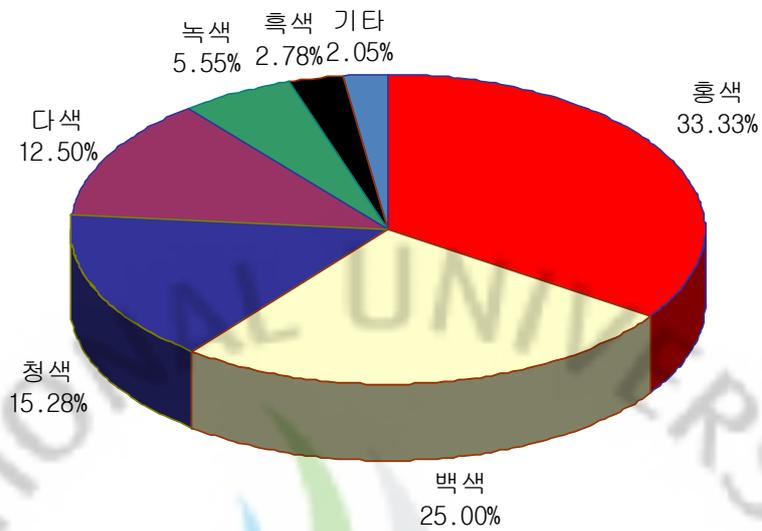
<그림 23> 규방자수공예소품에 나타난 색상에 따른 분류

<그림 24>은 조선시대 규방자수공예소품 중 주머니에 나타난 색상의 출현율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인데 홍색이 59.68%로 보자기류나 기타 소품류 보다도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것은 주머니가 실용성도 있지만 몸에 항상 지니고 다녀서 장식성이 크기 때문에 비싼 염료의 색이어도 부를 상징하고 벽사의 의미가 큰 홍색을 많이 사용한 것으로 보여지고, 다음으로 많이 사용된 황색도 중국황실의 색으로 부를 상징하기 위하여 보자기류나 기타 소품류보다 많이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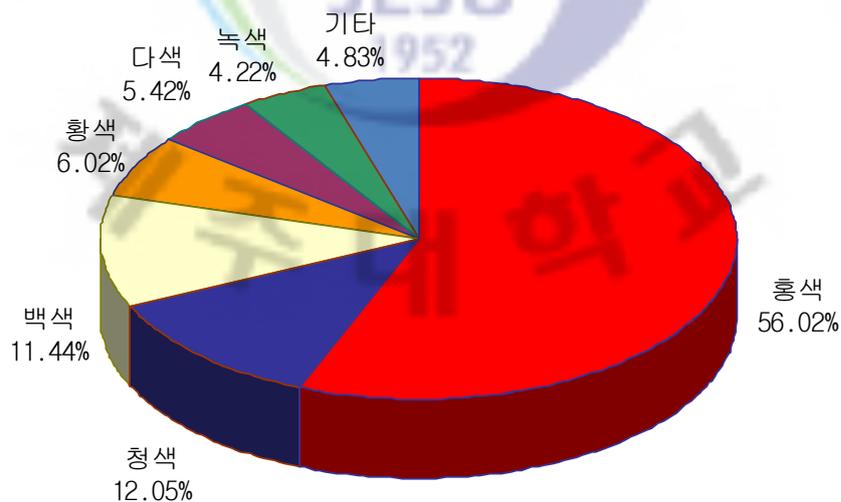
<그림 24> 규방자수공예소품 중 주머니에 나타난 색상 출현율

<그림 25>는 조선시대 규방자수공예소품 중 보자기에 나타난 색상의 출현율을 나타낸 그래프인데 주머니류나 기타 소품류보다는 홍색의 비중이 적고 백색의 비중이 높았다. 이는 보자기가 주머니류나 기타 소품류보다 제작할 때 천이 훨씬 많이 사용되므로, 주로 의복을 제작하고 남은 자투리 천을 사용하여 제작하는 보자기에는 귀한 색인 홍색을 사용하기 어려워 염색을 하지 않은 백색을 많이 사용했던 것으로 보여진다.



<그림 25> 규방자수공예소품 중 보자기에 나타난 색상 출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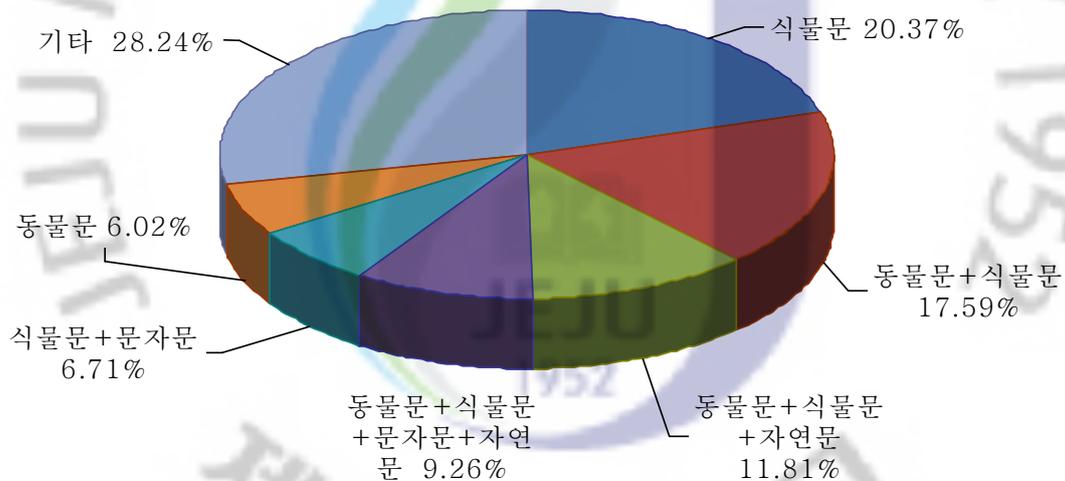
<그림 26>는 조선시대 규방자수공예소품 중 기타 소품류에 나타난 색상의 출현율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기타 소품류 또한 주머니류와 마찬가지로 사용되는 천의 양이 적기 때문에 자투리천을 활용하여 만들 수 있어서 비교적 홍색을 많이 사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26> 규방자수공예소품 중 기타 소품에 나타난 색상의 출현율

2. 문양

조선시대 규방자수공예소품에 자수로 사용된 문양의 출현율을 보면 식물문(20.37%), 동물문+식물문(17.59%), 동물문+식물문+자연문(11.81%), 동물문+식물문+문자문+자연문(9.26%), 식물문+문자문(6.71%), 동물문(6.02%) 등으로 식물문양을 가장 많이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그림 27). 내외법이 발달한 조선시대 부녀자들이 규방 안에서 장수와 부귀, 자손번창, 벽사 등의 염원을 담아 공예품에 수를 놓았을 것이다. 한가지의 문양만을 단독으로 사용한 경우보다 2~3개의 문양을 함께 사용한 복합형의 비중이 월등하게 높았다(그림 27). 이것은 단독문양보다 여러 종류의 문양을 함께 사용하여 다양한 상징성을 함축적으로 전달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그림 27>는 조선시대 규방자수공예소품에 사용된 문양의 유형별 출현율을 나타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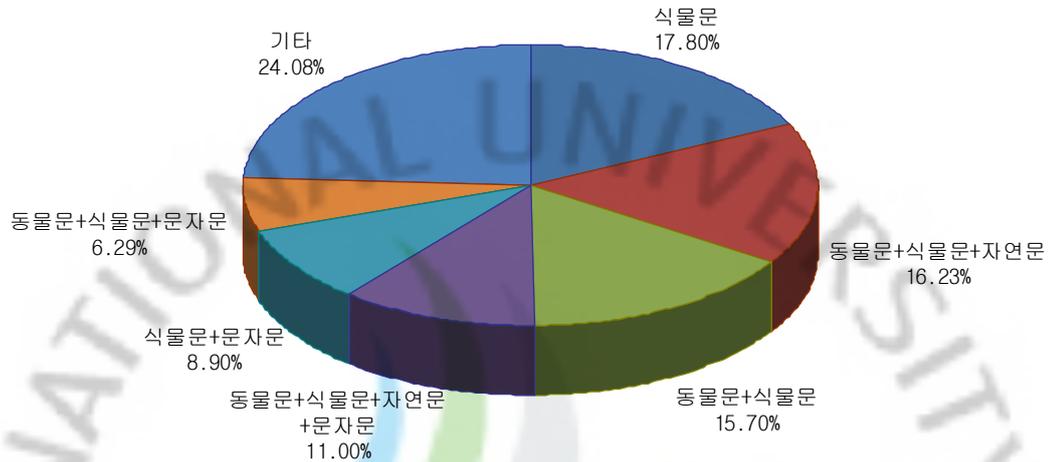
<그림 27> 규방자수공예소품에 사용된 문양의 유형별 출현율

<그림 28>는 조선시대 규방자수공예소품에 사용된 문양의 종류에 따른 분류를 나타낸 것이다.

단독형	동물문			
		① 자수문양, p.200	② 자수문양, p.200	③ 여인의향기, p.133
단독형	식물문			
		④ crafts of inner court, p.59	⑤ 한국의 미, p.173	⑥ 우리옷과 장신구, p.153
복합형	동물문 + 식물문 + 자연문			
		⑦ crafts of inner court, p.153	⑧ 자수문양, p.155	⑨ 자수문양, p.149
복합형	동물문 + 식물문 + 문자문 + 자연문			
		⑩ 자수문양, p.265	⑪ 조선조후기 궁중복식, p.201	⑫ crafts of inner court, p.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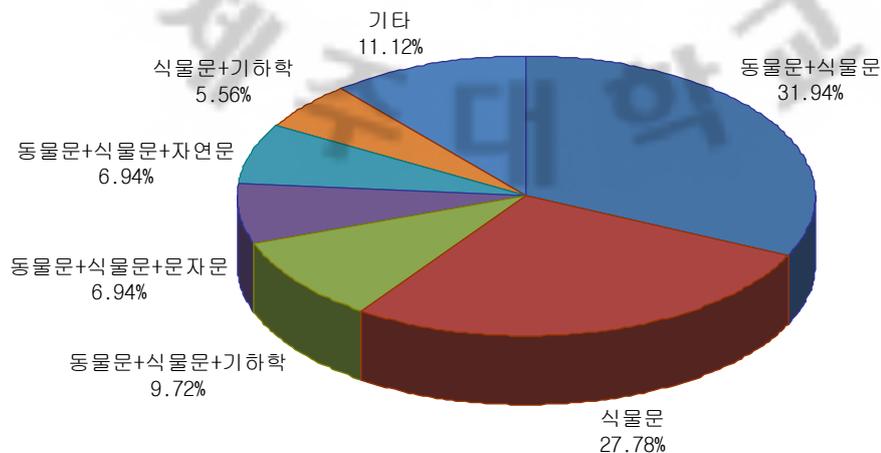
<그림 28> 규방자수공예소품에 사용된 문양의 종류에 따른 분류

<그림 29>는 조선시대 규방자수공예소품 중 주머니에 나타난 문양의 유형별 출현율을 나타낸 것인데 규방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식물문과 빈도가 비슷하게 동물문+식물문+자연문 과 동물문+식물문 등의 여러 가지 문양을 복합적으로 수놓은 예가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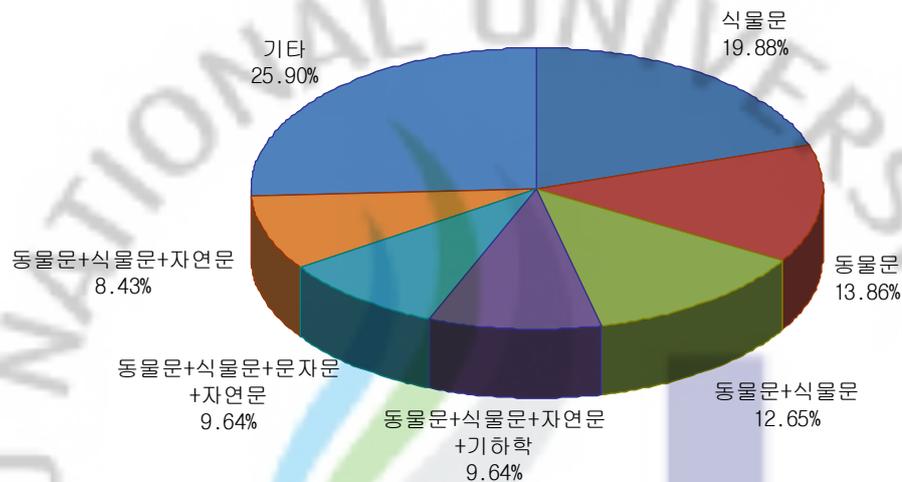
<그림 29> 규방자수공예소품 중 주머니에 나타난 문양의 유형별 출현율

<그림 30>은 조선시대 규방자수공예소품 중 보자기류에 나타난 문양의 유형별 출현율을 나타낸 그래프인데 동물문+식물문과 식물문 두 유형의 비중이 거의 60%를 차지하는데 이것은 보자기 72점 중 13점에 나무문양과 나무문양에 새나 나비를 수놓았고 14점이 기러기보로 한쪽 귀퉁이에만 꽃이나 꽃과 나비를 수놓았으며 13점이 조각보로 작은 조각안에 동물문이나 식물문만을 수놓은 것이 많았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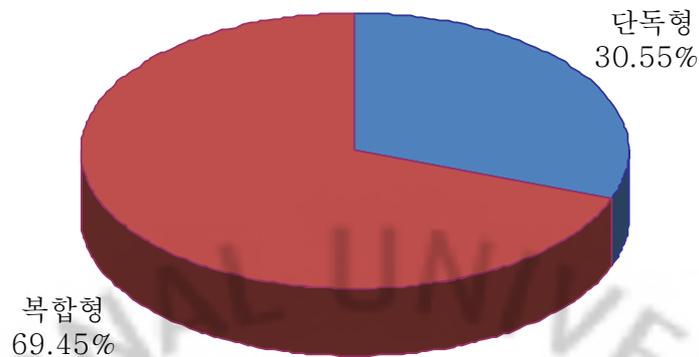
<그림 30> 규방자수공예소품 중 보자기에 나타난 문양의 유형별 출현율

<그림 31>는 조선시대 규방자수공예소품 중 기타 소품에 나타난 문양의 유형별 출현율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으로 주머니류나 보자기류 보다는 식물문과 동물문, 동물문+식물문과 같이 간단한 문양이 높은 출현율을 보인다. 이것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골무나 노리개, 바늘꽂이 등의 크기가 작은 소품에는 다양한 문양을 수놓을 수 없기 때문으로 볼 수 있으며, 비교적 크기가 큰 베갯모에는 다양한 문양이 수놓아져 있다.



<그림 31> 규방자수공예소품 중 기타 소품에 나타난 문양의 유형별 출현율

<그림 32>은 조선시대 규방자수공예소품에 사용된 문양의 유형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위의 그래프 들을 보면 식물문과 동물문 등의 단독형이 가장 높은 출현율을 나타냈으나 2, 3의 순위 등으로 갈수록 거의 모두 복합적인 문양만 나타나서 전체적으로 보면 단독형의 비중보다는 복합형의 비중이 월등하게 높았다.



<그림 32> 규방자수공예소품에 사용된 문양의 유형

문양의 배치구도에 따른 출현율은 회화형(56.67%), 충진형(42.16%), 산점형(1.17%)으로 회화형의 비중이 월등하게 높다(그림 33). 회화형은 사물을 그림 그리듯이 묘사해서 그 자체를 장식문양으로 사용하는 배치구도로서 자수기법에 가장 적합한 배치구도이다. 이 역시 장수의 의미가 있는 십장생도나 바깥출입이 부자연스러운 부녀자들이 안뜰에서 볼 수 있는 꽃과 나비 등을 많이 수놓음에 따라 회화형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33>는 조선시대 규방자수공예소품에 사용된 문양의 배치구도에 따른 유형별 출현율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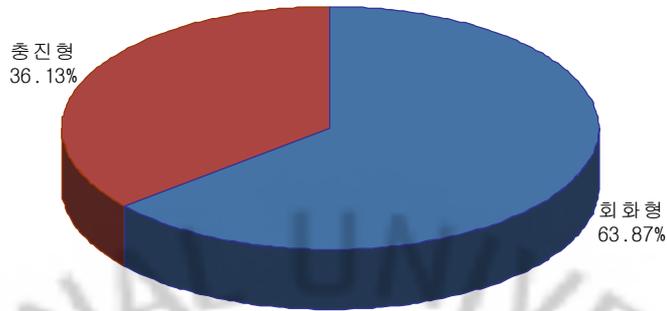
<그림 33> 규방자수공예소품에 사용된 문양의 배치구도에 따른 유형별 출현율

<그림 34>는 규방자수공예소품에 사용된 문양의 배치구도에 따른 분류를 나타낸 것이다.

회화형			
	① 자수문양, p.296	② 조선조후기궁중복식, p201	③ 자수문양, p.253
충진형			
	④ 자수문양, p.200	⑤ 자수문양, p.311	⑥ 자수문양, p.319
산점형			
	⑦ 자수문양, p.287	⑧ 자수문양, p.215	⑨ 자수문양, p.3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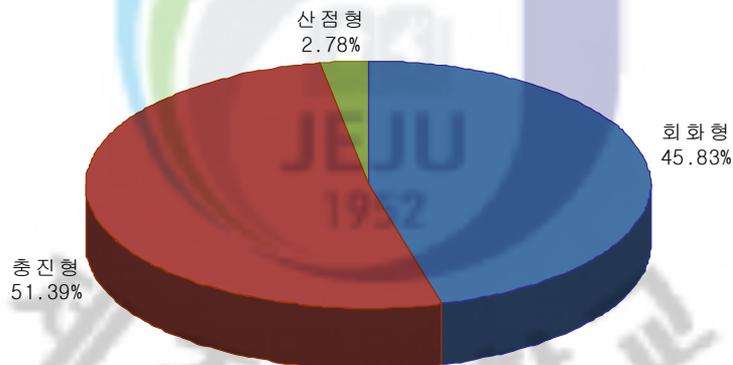
<그림 34> 규방자수공예소품에 사용된 문양 배치구도에 따른 분류

<그림 35>는 조선시대 규방자수공예소품 중 주머니류에 나타난 문양의 배치구도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인데, 보자기류나 기타 소품류보다 회화형이 많이 나타난다. 그 이유는 주머니의 크기가 회화형을 수놓기에 알맞기 때문인데 특히 두루주머니나 수저집 등에서 복합적인 문양을 수놓은 회화형이 많이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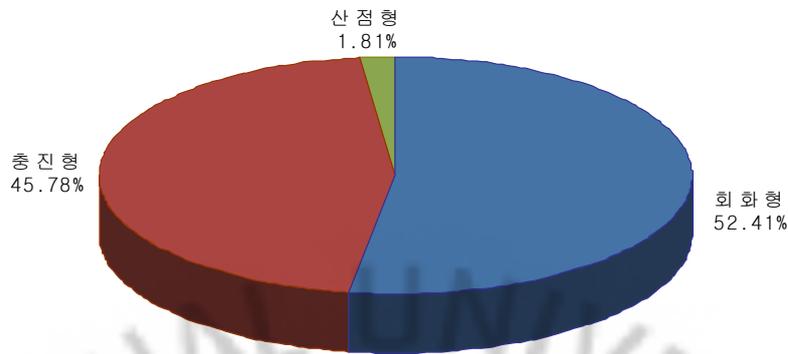
<그림 35> 규방자수공예소품 중 주머니에 나타난 문양의 배치구도

<그림 36>는 조선시대 규방자수공예소품 중 보자기에 나타난 문양의 배치구도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회화형의 비중이 50%를 넘는 주머니류나 기타 소품류에 비해 충진형의 빈도가 비교적 높는데 보자기 특유의 나무문양이 충진형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림 36> 규방자수공예소품 중 보자기에 나타난 문양의 배치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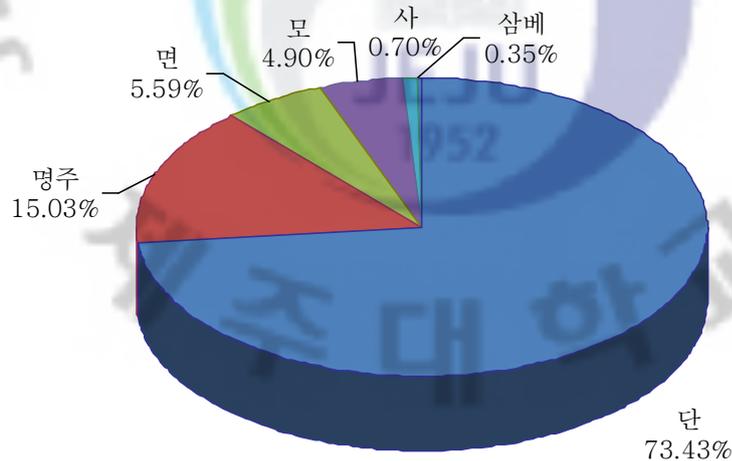
<그림 37>은 조선시대 규방자수공예소품 중 기타 소품에 나타난 문양의 배치구도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회화형의 비중이 더 크지만 충진형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은 기타 소품류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골무나 노리개, 바늘꽂이 등 크기가 작은 소품류에는 자수를 놓을 수 있는 면적이 좁아 한두개의 문양을 채우는 충진형 구도가 많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37> 규방자수공예소품 중 기타 소품에 나타난 문양의 배치구도

3. 소재

자수기법이 가장 많이 사용된 소재는 단(73.43%)이며 명주(15.03%), 면(5.59%), 모(4.9%), 사(0.70%), 삼베(0.35%)의 순이다(그림 38). 규방공예품은 단, 사, 면 등의 소재를 골고루 쓰지만 일반적으로 자수를 하는 바탕천은 두께가 도톰한 것이 용이하여 단 소재의 바탕천에 수를 많이 놓은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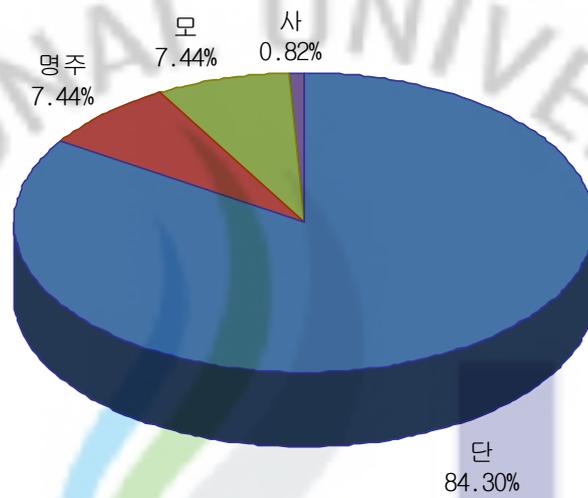
<그림 38> 규방자수공예소품에 사용된 소재의 유형별 출현율

<그림 39>은 조선시대 규방자수공예소품에 사용된 소재에 따른 분류를 나타낸 것이다.

견	단			
		① 우리옷과 장신구, p.153	② 자수문양, p.148	③ 자수문양, p.173
명주				
	명주	④ 자수문양, p.289	⑤ 옛속옷과침선, p.136	⑥보자기예술로승화된실용p68
면				
	면	⑦자수문양, p.288	⑧ 옛속옷과침선, p.151	⑨여인의향기, p.55
모				
	모	⑩옛속옷과침선, p.138	⑪보자기예술로승화된실용,p15	⑫여인의향기, p.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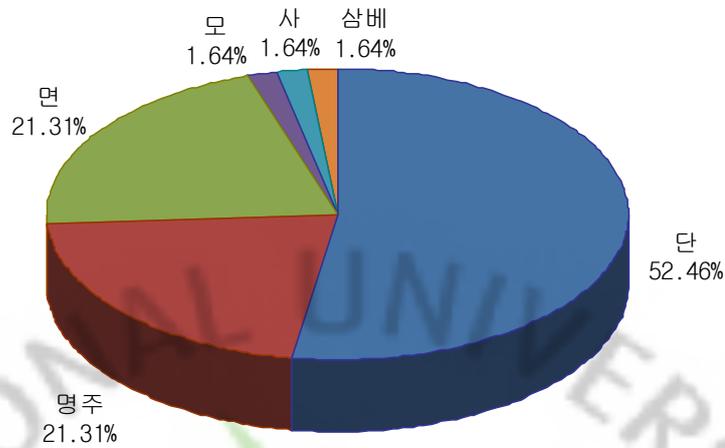
<그림 39> 규방자수공예소품에 사용된 소재에 따른 분류

<그림 40>은 조선시대 규방자수공예소품 중 주머니에 사용된 소재의 유형별 출현율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다른 유형과 마찬가지로 단과 명주를 가장 많이 사용하였는데 주머니류에서는 단의 비중이 월등하게 높았다. 이것은 주머니가 장식적 요소가 많기 때문에 명주보다 광택이 있고 고급스러운 느낌의 직물을 많이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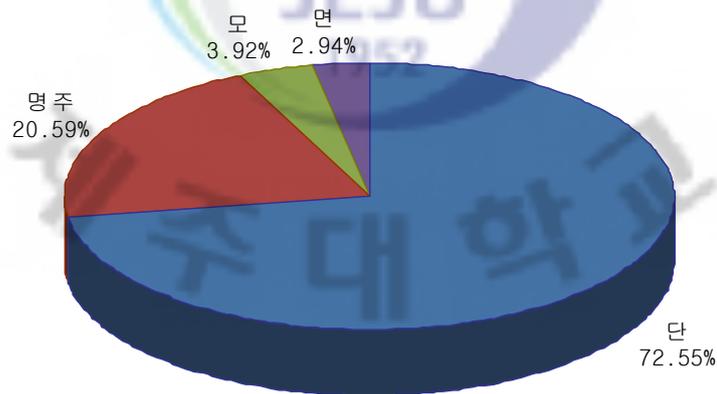
<그림 40> 규방자수공예소품 중 주머니에 사용된 소재의 유형별 출현율

<그림 41>은 조선시대 규방자수공예소품 중 보자기에 사용된 소재의 유형별 출현율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다른 유형의 자수공예소품보다 면의 출현율이 높은 것이 특징인데 이는 보자기류가 장식성 보다는 실용성이 더 중요시하며 비교적 많은 양의 천을 필요로 하는 보자기를 만들 때 흔히 구할 수 있는 면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41> 규방자수공예소품 중 보자기에 사용된 소재의 유형별 출현율

<그림 42>은 조선시대 규방자수공예품 중 기타 소품에 사용된 소재의 유형별 출현율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인데 기타 소품류 역시 단과 명주의 비중이 가장 큰 것을 볼 수 있다. 골무, 노리개, 바늘꽂이, 베갯모, 인두판 등 기타 소품을 만들 때는 사와같은 얇은 견직물이나 삼베와 같은 성긴 마직물은 적합하지 않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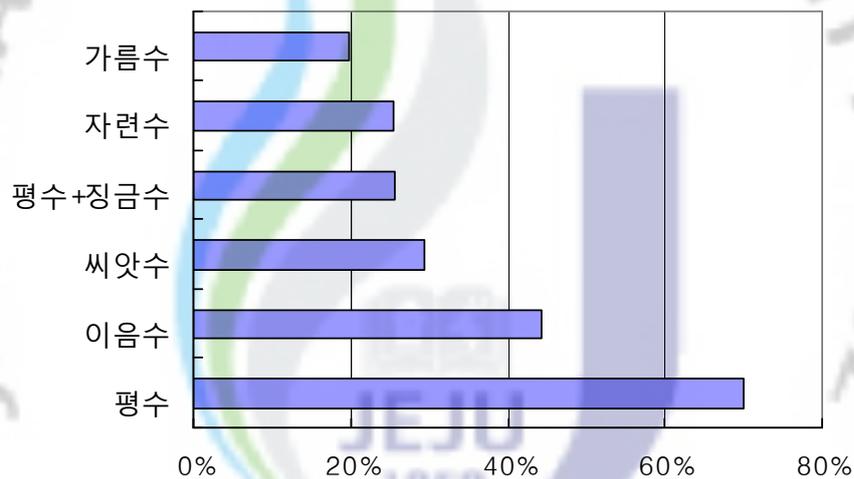


<그림 42> 규방자수공예소품 중 기타 소품에 사용된 소재의 유형별 출현율

4. 자수기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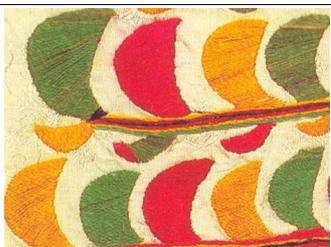
규방자수공예소품 중에는 평수(69.90%)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으며, 이음수(44.21%), 씨앗수(29.40%), 평수+징금수(25.69%), 자련수(25.46%), 가름수(19.91%) 등의 순서이다(그림 42). 평수는 가로, 세로, 어긋하게, 평행하게, 실을 늘려서 덮는 기법으로 가장 기본적인어서 뛰어난 솜씨가 없어도 다양한 표현이 가능하고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기법이므로 가장 많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음수는 선수라고도 일컬기, 윤곽선 등에 사용되는 서양자수의 아우트라인 스티치와 비슷한 수법이다. 씨앗수는 꽃의 암술과 수술, 동물의 눈 등을 나타내는 수법으로 바늘에 자수실을 돌려 묶어 놓는 수법이다.

자수기법은 작품 하나에 하나의 기법이 사용된 경우 보다 다양한 기법을 사용한 경우가 대부분인데 자수기법 경우의 수가 너무 다양하여 <그림 43>에서는 전체 작품에서 특정 기법이 쓰인 작품의 출현율을 나타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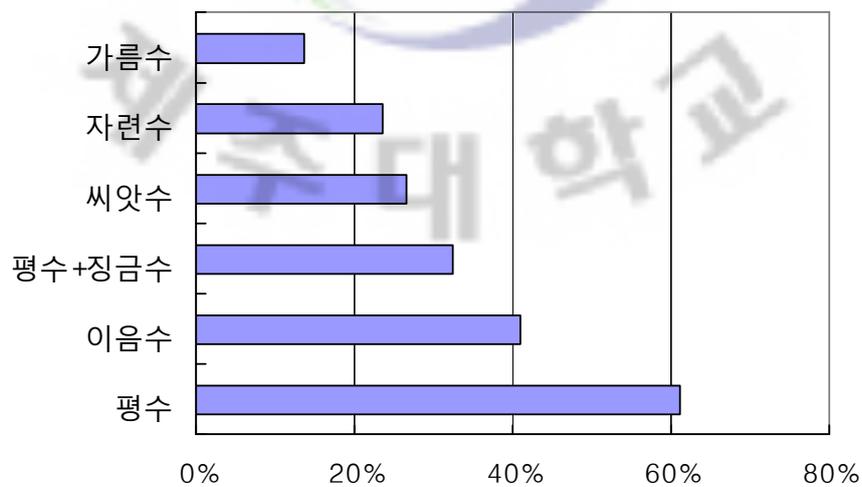
<그림 43> 규방자수공예소품에 사용된 자수기법의 유형별 출현율

<그림 44>은 조선시대 규방자수공예소품에 사용된 자수기법에 따라 분류한 표이다.

		
① 평수 (한국의미, p.111)	② 이음수 (하루하나)	③ 평수+징금수 (자수문양, p.201)
		
④ 씨앗수 (하루하나)	⑤ 자련수 (하루하나)	⑥ 가름수 (자수문양, p.2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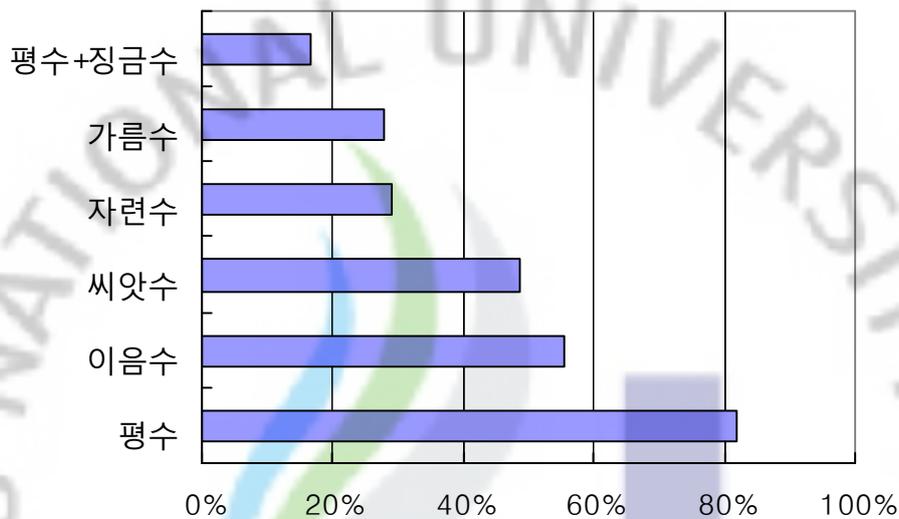
<그림 44> 규방자수공예소품에 사용된 자수기법에 따른 분류

<그림 45>은 조선시대 규방자수공예소품 중 주머니에 사용된 자수기법의 유형별 출현율을 나타낸 것이다. 전체 자수기법의 유형별 출현율과 다른점은 평수+징금수가 씨앗수보다 많이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가장 화려하게 장식하는 주머니류에는 금사징금수기법을 많이 사용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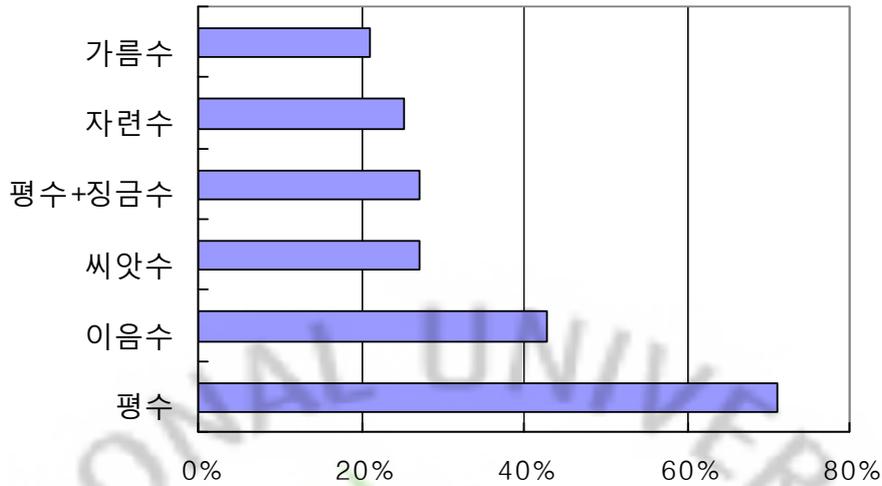
<그림 45> 규방자수공예소품 중 주머니에 사용된 자수기법의 유형별 출현율

<그림 46>는 조선시대 규방자수공예소품 중 보자기에 사용된 자수기법의 유형별 출현율을 나타낸 것이다. 보자기류에서도 역시 평수의 비중이 월등하게 높았으며, 특징적인 것은 평수+징금수의 출현율이 낮은편인데 가격이 비싼 금사로 징금수를 면적이 넓은 보자기에 수놓기는 힘들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주머니나 기타 소품과 달리 보자기는 물건을 싸거나 운반하기 위한 실용적인 용도로 흔히 사용되므로 고급자수기법보다는 공간을 메우는 평수나 선을 연결하여 표현하는 이음수 기법 등이 적합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46> 규방자수공예소품 중 보자기에 사용된 자수기법의 유형별 출현율

<그림 47>는 조선시대 규방자수공예소품 중 기타 소품에 사용된 자수기법의 유형별 출현율을 나타낸 표이다. 자수기법의 출현율 순서는 전체 규방자수공예소품의 유형별 출현율의 순서와 같으나 씨앗수와 평수+징금수의 출현율이 같게 나왔다. 그러나 전체 유형별 출현율과 큰 차이가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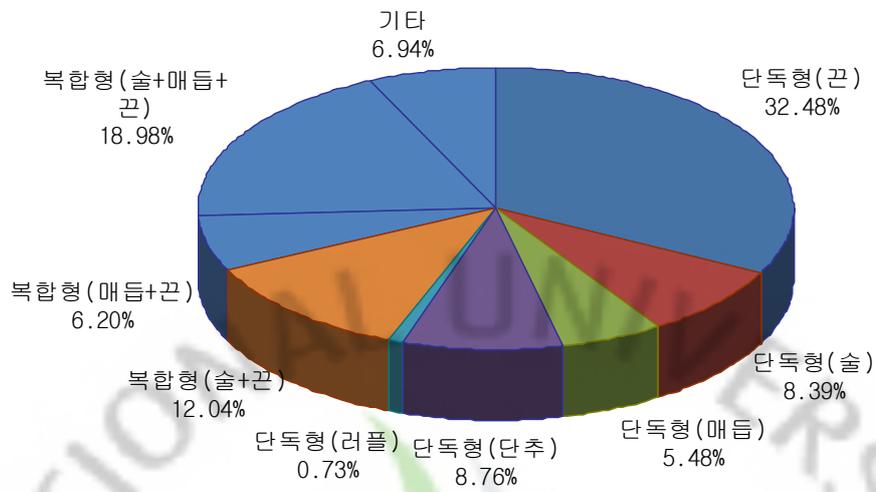


<그림 47> 규방자수공예소품 중 기타 소품에 사용된 자수기법의 유형별 출현율

5. 장식기법

조선시대 규방자수공예소품 429점 중 장식이 부착되어 있는 것은 271점(63.17%)이고, 장식이 없는 것은 158점(36.83%)으로 장식이 부착되어 있는 예가 훨씬 많았다. 장식이 있는 것 중에서는 한가지 장식만이 부착되어있는 단독형(55.84%)과 두가지 이상의 장식이 부착되어 있는 복합형(44.16%)로 나눌 수 있다. 이중 단독형의 종류로는 끈(32.48%), 매듭(5.48%), 술(8.39%), 단추(8.76%), 러플(0.73%)이 있고 복합형의 종류로는 끈+매듭+술(18.98%), 끈+술(12.04%), 매듭+끈(6.21%), 기타(6.93%)로는 고추, 괴불, 칠보, 방울, 동전, 장도, 작은안경집, 작은 두루주머니 등을 혼합하여 장식하여 사용하였다.

<그림 48>은 조선시대 규방자수공예소품에 사용된 장식기법의 유형별 출현율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인데 단독형 중에서도 끈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복합형을 보면 비율이 많이 나타난 장식기법에는 모두 끈이 포함되어 있었다. 끈은 주머니의 입구를 잡아매거나 보자기에 달아 묶는 등 실용적인 기능을 하기 때문에 가장 많이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48> 규방자수공예소품에 사용된 장식기법의 유형별 출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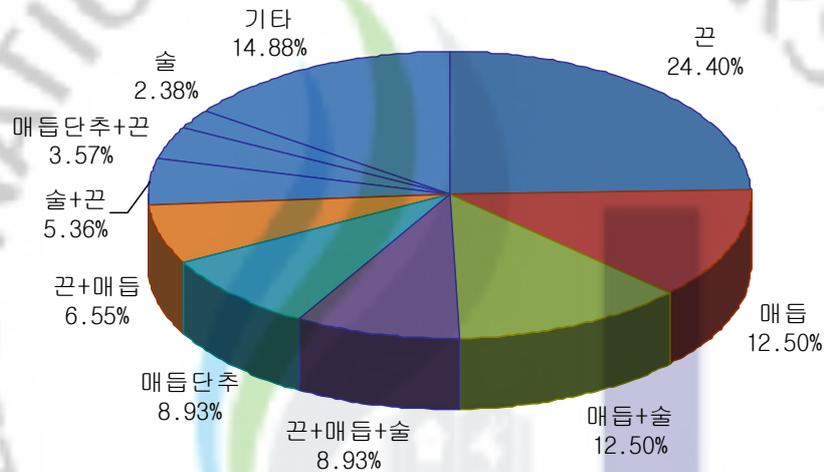


<그림 49>는 조선시대 규방자수공예소품에 사용된 장식기법에 따른 분류를 나타낸 것이다.

단 독 형				
	① 끈장식 바늘집 (자수문양, p.230)	② 끈장식 보자기 (자수문양, p.289)	③ 매듭장식 주머니 (자수문양, p.174)	④ 매듭장식 귀주머니 (하루하나퀵런더)
				
	⑤ 술장식 바늘꽂이 (자수문양, p.222)	⑥ 술장식 수저집 (자수문양, p.277)	⑦ 매듭단추장식 바늘꽂이 (자수문양, p.239)	⑧ 단추장식 바늘꽂이 (자수문양, p.252)
복 합 형				
	⑨ 술+매듭+끈장식 두루주머니 (인천 석남동 회곽묘 출토복식, p.56)	⑩ 술+끈장식 귀주머니 (crafts of inner court, p.20)	⑪ 매듭+끈장식 수저집 (crafts of inner court, p.21)	⑫ 매듭+끈+칠보장식 안경집 (한국의 아름다움, p.85)
				
⑬ 피블+두루주머니+술장식 귀주머니 (자수문양, p.154)	⑭ 고추+피블+술장식 두루주머니 (자수문양, p.168)	⑮ 고추+장도+피블장식 두루주머니 (자수문양, p.166)	⑯ 끈+매듭+안경집장식 두루주머니 (자수문양, p.1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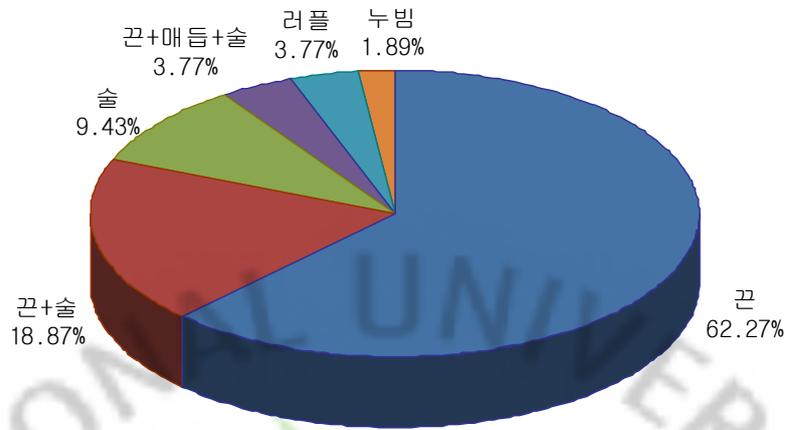
<그림 49> 규방자수공예소품에 사용된 장식기법에 따른 분류

<그림 50>은 조선시대 규방자수공예소품중 주머니에 사용된 장식기법의 유형별 출현율을 나타낸 것이다. 본 연구에서 가장 높은 유형별 출현율을 나타낸 주머니류에는 여미거나 옷에 부착하여 다니기 쉽게 하기 위해 실용적인 목적으로 끈을 많이 사용했으며 매듭과 술을 함께 사용하여 장식적 기능도 함께 했다. 그 외 벽사의 의미를 담은 괴불, 다남의 의미를 담은 고추, 정절의 의미를 담은 장도 등을 장식하기도 했다. 그리고 장식유형이 6유형밖에 없는 보자기나 12유형인 기타 소품에 비하여 주머니는 32유형이나 되는데 이것은 역시 몸에 항상 지니고 다니는 것으로 실용성과 함께 장식적인 기능이 큰 주머니에는 다른 규방소품보다도 다양한 장식기법을 사용하려 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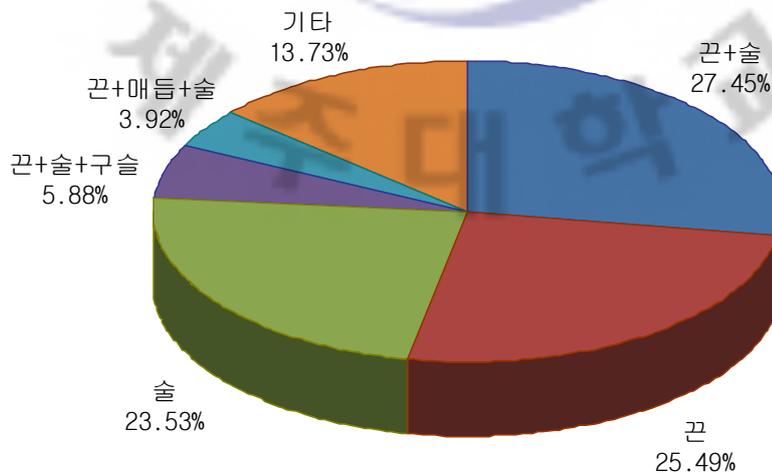
<그림 50> 규방자수공예소품 중 주머니에 사용된 장식기법의 유형별 출현율

<그림 51>은 조선시대 규방자수공예소품 중 보자기에 사용된 장식기법의 유형별 출현율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보자기는 싸거나 덮는 용도에 맞게 과한 장식을 피했던 것으로 보인다. 끈장식을 단독으로 사용한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그 외에 술, 매듭 등이 사용된 경우에도 끈과 함께 사용한 경우가 많았다. 이것은 다른 장식소품과 달리 보자기는 싸거나 덮는 실용적인 용도로 많이 사용되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그림 51> 규방자수공예소품 중 보자기에 사용된 장식기법의 유형별 출현율

<그림 52>은 조선시대 규방자수공예소품 중 기타 소품에 사용된 장식기법의 유형별 출현율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끈+술이 함께 복합적으로 사용한 경우, 끈이 사용된 경우, 술이 사용된 경우 등 기타 소품류 166점 중 장식이 있는 것은 52점(31.33%) 밖에 없었다. 그 이유는 기타 소품류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골무와 베갯모에 특별한 장식이 부착되지 않았기 때문이며 그 외에 노리개, 바늘꽂이, 열쇄패, 인두판 등에는 대부분 끈이나 술이 장식되었고 구슬이나 괴불, 비즈, 동전 등이 장식된 것도 있었다.



<그림 52> 규방자수공예소품 중 기타 소품에 사용된 장식기법의 유형별 출현율

V. 결론

내외법이 발달한 조선시대에 제한된 공간 안에서 생활하던 부녀자들이 실용과 장식을 위하여 바느질을 하여 자신들의 솜씨와 생각을 표현하였다. 문화의 세기라고 할 수 있는 현대에 문화가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며 경제발전의 중심축으로까지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문화적 전통과 가치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한국의 전통장식기법인 자수법을 이용한 규방자수공예소품의 유형을 이해하고 여기에 나타난 조형성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한국의 전통 규방자수공예소품에는 주머니류, 보자기류, 기타 소품류의 종류가 있다. 물건을 담는 용도는 주머니류, 물건을 싸거나 덮는 용도는 보자기류, 담거나 싸고, 덮는 용도가 아닌 바느질에 필요한 도구나 그 이외의 것들은 기타 소품으로 분류했다.

2. 조선시대 규방자수공예소품에 나타난 유형별 출현율을 보면 주머니류(44.52%), 보자기류(16.78%), 기타 소품류(38.70%)로 주머니류의 비중이 월등하게 높다. 이것은 우리의 의복인 한복에 주머니가 없어 실생활에서 불편하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대다수가 사용한 주머니류가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주머니류는 형태가 비교적 일정한 보자기류에 비하여 용도에 따라 여러 형태가 나타났다. 특히 몸에 항상 지니고 다니는 주머니류에는 다양한 상징적인 길상문양을 화려하게 자수 놓았음을 알 수 있다.

3. 조선시대 규방자수공예소품의 색상별 출현율을 보면 홍색(53.85%), 백색(12.35%), 청색(10.02%), 황색(6.76%)의 순으로 나타났다. 홍색의 비율이 많은 이유는 붉은색이 귀신을 물리친다는 벽사의 의미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보자기류는 주머니류나 기타 소품류 보다 제작할 때 천이 훨씬 많이 사용되므로, 주로 의복을 제작하고 남은 자투리천을 사용하여 제작하므로 보자기에는 귀한색인 홍색을 많이 사용하기 어려워 염색을 하지 않은 백색을 사용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4. 조선시대 규방자수공예소품에 자수로 사용된 문양의 출현율을 보면 식물문(20.37%)으로 규방에서 쉽게 관찰할 수 있는 식물을 소재로 가장 많이 수놓았고, 식물문+동물문(17.59%), 식물문+동물문+자연문(11.81%) 순으로 동물문양과 식물문양을 가장 많이 사용했음을 알 수 있는데 한가지의 문양만을 단독으로 사용한 경우(30.55%)보다 2~3개의 문양을 함께 사용한 복합형의 비중(69.45%)이 월등하게 높았다. 이것은 단독문양보다 여러 종류의 문양을 함께 사용하여 다양한 상징성을 함축적으로 전달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5. 문양의 배치구도에 따른 출현율은 회화형(56.67%), 충전형(42.16%), 산점형(1.17%)으로 회화형의 비중이 월등하게 높았다. 특히 주머니류가 회화형을 수놓기에 알맞은 크기이기 때문에 회화형이 많이 나타났고 골무같은 작은소품에서는 충전

형이 주로 나타났다.

6. 자수기법이 가장 많이 사용된 소재는 단(73.43%)이며 명주(15.03%), 면(5.59%), 모(4.9%), 사(0.70%), 삼베(0.35%)의 순으로 두께감이 있는 단의 견직물이 자수에 적합하여 가장 많이 나타나고 계절에 따라 소재를 달리했으므로 여러 종류의 소재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7. 자수 공예품 유물 중에는 평수기법(69.90%)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으며, 이음수기법(44.21%), 씨앗수기법(29.40%), 평수+징금수기법(25.69%), 자련수기법(25.46%), 가름수기법(19.91%) 등의 순서인데 뛰어난 솜씨가 없어도 다양한 표현이 가능하고 쉽게 활용할 수 있는 평수가 가장 많이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대부분의 자수품들이 한가지의 자수기법으로 수놓아진 것이 아니라 다양한 자수기법을 사용했는데 이것은 기계로 수놓아진 것이 아니라 사람이 놓는 수공예에서 볼 수 있는 특징이다.

8. 조선시대 자수 규방자수공예소품에는 여미고 옷에 부착하기 위한 실용성과 장식성을 위해 끈(32.48%), 매듭(5.48%), 술(8.39%) 등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외 괴불, 고추 등의 장식을 부착한 경우도 있었다. 그리고 한가지 장식만이 부착되어 있는 단독형(55.84%)과 두가지 이상의 장식이 부착되어 있는 복합형(44.16%)로 나눌 수 있는데 단독형이나 복합형 모두 끈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주머니 입구를 조여매거나 보자기에 끈을 달아 묶는 등 실용적인 기능을 하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9. 본 연구는 한국의 전통 규방자수공예소품 중 자수품을 중심으로 유형과 특성을 분석했으며 한국 고유의 전통성을 살리면서 현대적 감각을 가미한 한국적 디자인의 응용을 위해 시도한 것으로 향후 문화상품을 개발하고 자수공예품 외에도 한국 전통소품의 전통성 보존 및 보급을 목적으로 계속 연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 김보경. (2003). *규방공예의 전통 침선기법에 관한 연구*.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영숙. (1998). *한국복식문화사전*. 서울: 미술문화.
- 김영숙. (2002). *조선조 후기 궁중복식*. 서울: 신유.
- 김은영. (1994). *전통 매듭*. 서울: (주) 대원사.
- 김옥광. (2007). *옛 보자기의 멋*. 서울: JINDIJITAL.COM.
- 김용숙. (1987). *朝鮮朝 宮中風俗 研究*. 서울: 일지사.
- 김옥현. (2002). 한국의 주머니 연구 및 현대화. *예술논총*, 5, 1-17.
- 강정현, 권영숙. (2003). 한국전통주머니에 나타난 감성이미지. *복식*, 53(4), 1-16.
- 김지영, 김문진. (2003). *오방색실과 천으로 잇는 천연 세상*. 서울: 겉치라인.
- 김정호, 이미석. (2004). *전통염색과 소품만들기*. 서울: 한남대학교 출판부
- 김종태, 김지아, 김지윤. (2004). *자수문양의 종류와 상징성 -국립민속박물관 소장품을 중심으로-*. 서울: 국립민속박물관,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 권미오. (2002). 전통문양을 응용한 문화상품의 개발과 홍보의 전개. *출판문화학회*, 10(1), 161-178.
- 국립 문화재연구소. (2007). *국역 국혼정례*. 서울: 국학자료원.
- 경운박물관. (2003). *근세복식과 우리문화*. 서울: 경기여고 경운박물관.
- 경운박물관. (2005). *옛어린이옷 그소중한어여뻐*. 서울: 경기여고 경운박물관.
- 경운박물관. (2006). *옛 속옷과 침선*. 서울: 경기여고 경운박물관.
- 경운박물관. (2007). *보자기 예술로 승화된 실용*. 서울: 경기여고 경운박물관.
- 국립중앙박물관. (1988). *한국의 아름다움*. 서울: 통천문화사.
- 국립민속박물관. (1997). *한국복식 2천년*. 서울: 도서출판 신유.
- 국립대구박물관. (2002). *한국전통복식 2천년*. 서울: 통천문화사.
- 국립민속박물관. (2004). *자수문양*. 서울: (주)대원사.
- 국립민속박물관. (2005). *한민족역사문화도감*. 서울: 국립민속박물관.
- 조선왕조실록 CD-ROM 간행위원회. (1995). *국역 조선왕조실록 증보판*. 서울: 서울시스템주식회사.
- 박옥련. (2000). *한국전통복식문양사*. 서울: 형설출판사.
- 박성실, 조효숙, 이은주. (2005). *조선시대 여인의 멋과 차림새*. 서울: 단국대학교 출판부.
- 서정인, 유재선. (2000). *자수기능사*. 서울: 대광문화사.
- 서재식. (2007). *KOREAN PATTERNS*. 서울: (주)한림출판사.
- 숙명여대박물관. (2005). *HARUHANA 2006 Calendar*. 서울: (주)새순기획.
- 안은숙. (1996). 보자기 연구 및 기초 제작법. *한국여성교양학회지*, 3(1), 1-12.
- 양숙향, 최선미. (2007). *전통장식공예*. 서울: 교학연구사.

- 온양민속박물관. (2007). *여인의 향기*. 충남: 온양민속박물관.
- 우서혜. (2005). 조선시대 규방공예에 나타난 우리 색채. *디자인여성학회 학술대회자료집*, 1(2). 69-76.
- 이경자, 홍나영, 장숙환. (2003). *우리옷과 장신구*. 경기도: 열화당.
- 이미석. (2006). *우리규방문화와 침선소품*. 경기도: 한국학술정보(주).
- 인천광역시립박물관. (2005). *인천 석남동 회곽묘 출토복식*. 인천: 인천광역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 이경자. (2005). *전통 한복의 멋 노리개*.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임상임, 안명숙. (2006). *전통매듭공예*. 서울: 교문사.
- 허동화. (2006). *우리가정말 알아야 할 규방문화*. 서울: (주)현암사.
- 허동화, 김현희. (2004). *보자기*. 서울: 한국문화재보호재단.
- 허동화, 박영숙. (1998). *crafts of the inner court*. 서울: 한국자수박물관 출판부.
- 한상수. (2004). *기본자수*. 서울:수림원.
- 한선주. (2002). 한국과 일본 보자기의 문화산업적 비교. *한국공예학회지*, 5(1). 201-220.
- 한국학중앙연구원. (2008). *상방정례*. 서울:한국학연구원 장서각.

ABSTRACT

Formative Features of Women's Embroidered Handicrafts of the Joseon Dynasty

Kwon Su-Yeon

Department of Clothing and Textiles

Graduate school of J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 Jang Hyun-Joo

Gyubang crafts refer to women's daily necessities craft such as *Jumoni* (pouches), *Bojagi* (wrapping cloths), and other accessories made by women in the *Joseon* Dynasty era, who were not able to freely go outside. Among these crafts, embroidery handicrafts had the practicality of women's handicrafts as well as decorative features. In addition, they were also a vehicle for the thoughts and wishes of women who had spent most of their time inside *gyubang*.

Recently, many countries have tried to develop cultural products from their own unique culture. Korea also has had an increasing interest in developing cultural products and many agencies or institutions have kept developing cultural products. However, most of the products are reproduced goods made in China with low quality and low price, which led to a damage of their reputation. Thus,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embroidery handicrafts of the *Joseon* Dynasty era and to develop cultural products from a modern and practical viewpoint.

Through the second-hand study of books and museum collection books as well as the first-hand study of relics in museums, 429 pieces of handicraft embroidery were analyzed focusing on their colors, patterns, embroidery methods, and decoration techniques. The findings of the study are the following:

The types of embroidery handicraft items included *jumoni* (pouches used for carrying small objects), *bojagi* (clothes used for wrapping or covering objects), and other accessories used for sewing or for other purposes. Most of the handicrafts were *jumoni* (44.52%), followed by *bojagi* (16.78%) and other accessories (38.70%). *Jumoni* seemed to be used a lot because there were no pockets attached on Korean traditional costumes until a vest is introduced. Since

people carry it with them all the time, various kinds of lucky symbols were embroidered on *jumoni*.

The study of patterns used in embroidery handicrafts showed plant patterns (20.37%) and animal and plant patterns (17.59%) had been greatly used. Flower patterns or flower and butterfly patterns were used the most frequently because flowers and butterflies may be the easily observable outside view from the *gyubang* area. In addition, compound types using two or three patterns together (30.55%) were used more frequently than an individual pattern used alone (30.55%). It can be inferred that women tried to express various symbols at a time by using several patterns together rather than using only one pattern.

The study of the arrangement of the patterns showed that pictorial types (56.67%) were the most frequently used and dense types (42.16%) and sparse types (1.17%) were followed. In the pictorial type, *Shibjangsaeng* (the ten traditional symbols of longevity), flowers, or butterflies were the most frequently used while the dense type was mostly used in small items such as thimbles. The sparse type was rarely used.

The study of materials used for embroidery showed that *dahn* (73.43%) was used the most frequently, followed by silk (15.03%), cotton (5.59%), wool (4.9%), *Sa* (0.70%), and linen (0.35%). *Dahn*, thick silk fabric, seemed to be suitable for embroidery. Linen, sparse fabric, was rarely used although it was frequently used for *bojagi*.

The study of stitches used in the relics of embroidery handicrafts showed that satin stitch (69.90%) was the most frequently used, followed by outline stitch (44.21%), French nut stitch (29.40%), satin and running stitch (25.69%), long and short stitch (25.46%), double leaf stitch (19.91%), and so on. Satin stitch seemed to be used a lot because it is easy to learn and to express various things. Most of the embroidery handicrafts showed that more than one stitches were used.

For both practical and decorative purposes, women's handicraft was attached with strings (32.48%), string and *maedeup* (Korean knots) and tassel (18.98%), string and tassel (12.04%). In addition to those, it was decorated with buttons, *goebul* (an embroidered pouch), pepper made of fabric, and so on.

Key words: embroidered handicrafts, Jumoni, *Bojagi*, other accessories

감사의 글

본 논문을 마무리 하면서 논문을 쓰는 동안 있었던 많은 일 들이 눈앞을 스쳐 지나갑니다. 처음에 가졌던 마음가짐들이 지금은 아쉬움으로 남아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먼저 논문을 쓰는 5학기라는 시간동안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세심하게 지도해 주셔서 논문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신 장현주 교수님께 큰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저의 논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적해 주셔서 더 높은 완성도를 가진 논문을 쓰게 해주신 권영숙 교수님, 장정아 교수님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학원에 입학하여 논문을 쓰기까지 관심으로 지켜봐주신 여러 교수님, 선배님과 후배님, 그리고 대학원에 입학하여 아무것도 모를 때 서로 힘이 되어준 동기들, 논문을 쓰는 동안 많은 배려를 해준 지하 연구실 식구들 에게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언제나 저를 믿고 사랑해주시는 친정부모님과 오빠, 학교를 마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시부모님과 논문을 쓰는 동안 태어나서 많은 시간을 함께하지 못한 연아와 시댁식구들, 특히 언제나 제 옆에서 무한한 사랑으로 기다려주고 배려해주고 도움을 준 남편에게 말로는 다 표현 못할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가장 힘든 시기에 가까이에서 큰 힘이 되어준 해진언니,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는 두리, 멀리에서 응원해 주시는 은미 선생님, 자수를 알게 해주신 한상수 선생님, 신기한 훈글의 세계를 알려준 흥반장님, 큰 웃음소리로 그래프 색을 바꿔주던 알로에, 용기를 불어넣어 주던 지속언니와 엠, 자잘한 도움을 준 경민 과 주위의 많은 분들과 논문을 마무리하는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2009년 7월
권수연 드림